두 검사 이야기

두 사람은 모두 나의 연수원 시절 같은 반이었다.

한 사람은 2012년 12월 박정희 시대에 만들어진 악법으로 처벌된 이들의 재심사건에서 무죄구형을 하였다가 4개월 정직의 중징계를 당한다. 다른 한 사람은 2013년 국정원에 파견되어 국정원댓글사건 수사대응TF팀의 팀장으로 일하였고 지난 금요일 증거인멸죄 등의 혐의로 밤샘조사를 받았다.

전자는, 그 후 징계, 검사적격심사 탈락 위기, 부장검사 승진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 후자는 같은 기간 해외파견 근무와 부장검사 승진 등 잘 나가는 시절을 보냈고, 그 부인은 해외체류를 경험으로 “oooo, 행복한 육아”라는 책도 펴내고 십수년 쉬어 오던 아나운서 활동을 재개해서 종편에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전자는 백지구형을 하라는 상급자의 지시를 다투기 위해 검찰청법의 이의제기권을 행사하였으나 이의제기에 따른 후속절차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무죄구형을 결행했고, 내가 아는 한 그 검사의 생각은 이랬다.

첫째,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로 선언되었으니 당연히 무죄가 선고될 사건인데 이러한 유의 재심사건에서 관행적으로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의견을 내는 백지구형은 구형업무를 사실상 하지 않는 것이고, 검찰이 과거의 잘못에 대하여 아무런 반성과 성찰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

이 검사는 내부에서 야당 공천을 노리고 일부러 튀는 짓을 하는 정치검사라고 힐난받고 배척당했는데, “무죄를 무죄라고 하는 게 정치적인가. 아니면 무죄를 무죄라고 하지 못하는게 정치적인가”라는 질문을 하곤 했다.

둘째 MB시절 박형규 목사에 대한 재심사건에서는 무죄구형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임기하에서는 이게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납득되지 않았다는 것.

그런데 이렇게 전혀 다른 길을 걷던 두 검사가 한번은 맞닥뜨렸던 것 같다. 후자가 전자에게 “친구의 처지에서 안타까워 충고한다. 본인만 양심있는 체 하며 검찰을 구제불능의 조직, 반성할 줄 모르는 개혁저항 세력으로 만들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얻으려는 게 뭐냐. 우리 공안부 검사들도 양심이란 게 있다”며 공개적으로 비난했던 것.

자신에게도 양심이 있다면 그 검사의 국정원에서의 기여와 행적은 조만간 밝혀질 테고, 1, 2심에서 승소하고도 수년을 대법원에서 잠자던 다른 검사의 징계처분취소소송은 내일 선고된다.

지난 10년은 그런 세월이었다. 크게 다르지 않은 길을 걸을 것 같던 사람들이 각자의 선택에 따라 움직였고, 우리에게는 진짜와 가짜를 가릴 수 있게 된.

에피소드 1 : 잘봐 주라는 말을 못 알아 먹고……

검찰과 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개 올리다보니 딱 기억에 난 게... 내가 한 때 검사였다는 거다. 굉장히 짧았고 오래 전인데다가, 요즘 워낙 부끄러운 조직이 되다보니 생각도 하기 싫었다보다. 내 머릿속의 지우개가 작동하기 전에 검사 시절의 몇몇 일들을 정리해 봐야겠다.

검사들에게 정치권과의 연줄은 위로 올라가는 동아줄이고, 정치인들이 신세질 만한 사건이 자신에게 오는 것은 행운이 된다. 그런 생리를 1도 모르는 초짜 검사 시절 이야기다. 나의 검사경력도 그저 초짜 검사에서 끝나지만.

임관하고서 2개월쯤 것 같다. 경찰에서 구속영장기록이 하나 올라왔는데, 부장검사가 전화를 해서 “피의자 형이 국회사무처장이니 기록을 잘 보라”고 하는 것이다. 기록을 잘 보니 음주운전 3회째에 뺑소니...

음주 운전 삼진 아웃제라고 해서 음주운전이 3회째이면 무조건 구속시키는 게 검찰내부규정이었고, 거기다가 뺑소니까지 추가되었으니 구속감은 확실히 되었다. 혈중알콜농도는 0.1%를 조금 넘었고 피해자 상해는 2~3주로 경미한 편이었다. 나는 “구속할 것”이라고 쓰고 서명한 다음 도장을 띄워 찍었다. 이때 나는 진지리치질 정도로 순진해서 부장의 “기록을 잘 보라”는 말이 잘 봐주라는 말일 줄을 생각도 못했고 진짜 사전적인 의미로 기록을 꼼꼼하게 잘 봤다. 그리고 “그 형이 국회사무처장이라면 누가 되지 않게 더욱 처신을 잘 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며 도장을 아주 파악 눌렀다.

기록이 결재를 위해 부장실에 올라간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부장이 전화를 해서 도장을 들고 부장실로 오라고 했다. 부장실로 갔더니 부장이 영장기각사유를 타이핑해서 출력한 다음 직접 출력된 용지를 가위로 곱게 오리고 있었다. 그런 다음 “구속할 것”이라는 결정부분을 완전히 가리도록 폴로 붙였다. 모서리까지 꼼꼼히 잘 붙인 다음 나에게 서명과 날인을 하라고 “명령했다”. 입에서는 “이건 제 결정이 아니라 부장님 결정이니까 제 도장을 찍을 순 없죠”라는 말이 뱉들었지만, 2개월된 초짜검사였고 높게만 여겨지던 부장검사, 전혀 대비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인지라 그냥 시킨 대로 하고 부장실을 나왔다.

나는 검사를 그만 둔 게 세상 잘한 결정인 것 같다. 작은 사건에서 말을 잘 들은 것처럼 큰 사건에서도 윗선의 말을 잘 들었을 것이고, 그럼 사회에 큰 해악을 끼쳤을 것이므로.

"나는 상관의 명령을 받고 국가적 행위를 수행했을 뿐이다"

누구의 변명이었을까. 계속해보면

"나는 책임있는 지도자들의 손아귀에서 한낱 도구였을 뿐이다. 내가 아니었더라도 혹은 내가 거부했더라도 독일의 다른 이가 그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이고, 그래서 유대인의 집단학살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악명높은 나치전범 아이히만의 항변이다. 똑같은 변명을 대한민국의 검사들에게서 지금 우리는 듣고 있다. 소름이 끼친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다른 누가 국정원에 갔더라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적폐세력과 한편먹은 언론들이 지어낸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검사들이 진짜 그런 말들을 한다고 한다.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검사들을 움직인 것은 "인정과 보상"의 기제라고 본다. 그들은 그들의 선배들이 불의한 정권에 협력한 결과로 어떠한 보상을 받는지를 보았고, 자신에게 온 기회를 감사히 활용한 것이다. 다음 정권도 2012년 대선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출되어 그들의 범죄는 묻히고 그들의 천년왕국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

어느 칼럼에서 빼겨 둔 글귀이다.

<억압적인 지배체제는 단순히 지배이데올로기나 위로부터의 명령에 의해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지배에 동참하는 행위자들의 능동적인 자기형성의 과정이 항상 존재한다. 능동적 가해자로서의 자기 형성은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들과의 상호작용과 경쟁 및 집단적 학습 과정을 통한 결과이다. 가해행위는 대개 명령과 지시를 수동적으로 집행하는 이들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넘어 자신의 일을 정확히 인지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자들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

자아성찰능력이 부족한 검사들이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국민은 이제 안 속는다. 너네들 어찌냐 인제.

에피소드2 :

검찰의 변방에서 올바른 모성보호를 외치다 "못되쳐먹은 가시나"가 되다

검사의 업무 중에 변사체검시라는 게 있다. 범죄로 사망하였는지를 가리기 위해 부검이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육안으로 확인해보는 건데, 확인 후 유족에게 인도하거나 혹은 부검을 하라는 지시를 하게 된다.

일단 시체안치실에 들어가면 냉장고에서 시신을 꺼내오는데, 피부가 찬물이 움푹 스며든 장판지마냥 냉기를 내뿜는 데다가 모공마저 전혀 보이지 않아 이게 한때 사람이었던 생물체의 피부인지 현실감이 없다. 나는 지켜보는 것까지 괜찮은데, 라텍스장갑을 끼고 만지게 하는 게 참 괴역이었다.

나는 변사체검시를 가게 되면 제발 부검지시를 하게 될 일이 없기를 바랬다. 부검을 하면 시체의 장기를 다 헤쳐서 무게를 달고 현미경관찰을 위해서 조직을 채취해서 절편을 만든다. 위는 잘라내 내용물을 꺼낸다. 소화된 정도를 보고 정확한 사망시각을 알아낼 수 있고 독극물의 존재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에는 꺼내놓은 장기를 모두 집어넣고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 부검의들이 정교하게 꿰맨다. 유족들의 감정을 보호해야 하므로 두부도 눈에 띄지 않는 뒷쪽으로 갈라서 외상 여부 등을 검사하고 암튼 신경을 쓴다. 하지만 부검 과정이 워낙 분주하다보니 어느 부검의는 배속을 다 꿰매고 났더니 두개골 안에 넣을 뇌수가 없어서 그제서야 뇌수를 뱃속에 넣은 것을 알아챘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임관한지 얼마 안 된 봄날, 수석검사 한 분이 초임 여검사 셋을 불러놓고 임신한 선배검사의 태교에 나쁜 영향이 있으니 변사체 검시를 우리 셋이 대신 번갈아 하라고 지시했다. 대학 때 여성학 책을 좀 읽어 본 내가 셋의 의견을 모아 항의를 했다. 좀 웃기기는 하지만 나름 비장했는데,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세대를 이어가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하는 것인데, 여성검사들에게만 교대로 맡으라는 것은 위 같은 사회적 역할을 부정하고 임신과 출산이 무슨 여성의 천형이나 되는 것처럼 취급하는 것이다. 그 형사부 아니면 모든 형사부의 검사들이 순번제로 대체하든지 좀더 합리적인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

그런데 그 수석검사의 대답은 "이 못되쳐먹은 가시나들. 그렇게 선배 생각을 안 해주나. 너엇들 참 이기적인 거 아냐"였다.

나는 서울대 법대를 나오신 배우신 그 분이 "내가 생각이 좀 못 미쳤구나"라고 할 줄 알았다. 그런데 상명하복의 조직질서에서 감히 아랫것들이 반기를 든 상황이 너무나 노엽고, 자신은 똑똑하고 현명한데다가 임신한 후배검사까지 챙기는 따뜻한 사람이라는 자긍심넘치는 자체 평가로 압도되어 우리가 한 표명이 객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다.

검찰에서 아랫사람으로부터 잘못을 지적당한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이와 같았다. 자신은 무오류의 관대하고 훌륭한 사람인데 아랫사람이 그 뜻을 못 알아주는 못되고, 이기적인 놈들인 거다.

그런데 "못되쳐먹은 가시나"라는 발언도 다소 충격적이었지만, 임신한 선배검사의 반응도 만만치 않았다.

자신은 임신에도 불구하고 남성검사의 뭇을 해낼 수 있는데, 맡겨진 일을 해낼 수 없는 열등한 존재로 취급된 데 대해서 분노하고 실망해서, 사태가 이렇게 되자 나서서 변사체검시를 대신해주겠다고 한 연수원 동기인 남성검사와 수석검사에게 자기가 다 해낼테니 참견하지 말라고 광광대며 선언했다.

그 조직에서 그들은 다 완벽한 체 굴었다.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는 아무런 오류가 없고,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가 없거나 이겨낼 수 있다고 여겼다. 그리고 그런 만큼 그만큼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여기는 듯 했다. 이것이 오래 전 그 조직을 떠난 나에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인상이다.

에피소드 3 : 색검의 진실 혹은

저는 오입질을 못하는데요

내가 검사로 임관한 지 얼마 안된, 아직 꽃샘추위가 여전한 봄날의 일이다. 소속 형사부의 부장이 아닌 다른 부장은 우리 새내기들 검사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다. 바라볼 때 "이런 핏덩이들" 이렇게 생각하는 느낌이라고나 할까. 그런데 강력부장은 유독 새내기검사들을 불러 식사를 내면서 검사로서의 팀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 자리에서 한 말은....

"결국 수사성과는 같은 방 수사계장들이 내 일같이 달려들어서 해야 나오는 거니까 계장들과 일단 친밀감을 쌓아야지. 그럴려면 오입질도 함께 하고"

나는 내 귀가 잘못 된 줄 알았는데, 앞의 다른 검사들의 표정을 보고 그렇지 않은 줄을 깨달았다. 이제 연수원을 갓 수료한 검사들이 40~50대의 수사계장을 지휘하기란 쉽지 않을 수 있다. 서로 맹충맹충하게 지내기 쉬운데, 이 부장님은 유대감을 갖는 비결로 오입질을 권한 거다. 본래 지위가 달라서 가까워지기 어려운 사이이지만, 이른바 업소에서 같이 성욕을 해소하면서 같은 슷컷이라는 동류의식을 느끼고 친해질

수 있다는 뜻인 듯 했다.

검사들에게 수사계장과의 친화력을 쌓는 방법으로 오입질을 가르쳐주다니..... 정말 놀라운 조직이었다. 그리고 지극히 남성중심적인 조직이라서 그 곳에 있던 10인의 신입검사 중 3명의 여성의 존재는 마치 투명인간인 듯 그런 발언을 하는 데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지금의 아줌마력을 그때도 가지고 있었다면 벌떡 일어나서 "부장님 저는 자자가 달려 있지 않아서 오입질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물어 보았을 것이다. 그러면 적어도 그 부장을 당황하게 하는 재미는 있었을 것 같다.

부장님의 로맨스

나의 첫 부장은 어느 날 점심을 먹다가 자기의 로맨스를 풀어놓았다.

부산지검에 발령받게 되었는데, 가족들은 분당에 있으므로 매일 관사에서 혼자 지내는 저녁시간이 너무 적적하고 따분해서 나이트클럽 사장에게 여자친구 하나를 소개해달라고 했었다. 그래서 뭐 이혼녀나 소개해 주나 싶었는데 무려 미스해운대를 소개시켜 주어서 부산에서 아주 즐겁게 생활을 할 수 있었었다. 그러다 새로이 발령이 나서 헤어지게 되었는데, 지역유지의 호화요트를 빌려 통영으로 이별여행을 갔다. 그 미스해운대는 요트의 갑판위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자기는 낚시를 했는데, 그 미스해운대의 매끄러운 살결에 오일을 발라주면서.....

부장이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나는 속으로 그들의 죄를 헤아리고 있었다. 간통죄에다가, 호화요트를 빌린 건 수뢰죄, 아마도 그 나이트클럽 사장은 젊고 미인인 여자친구를 만들어주고 그 대가로 부장에게 이것 저것 민원을 넣었을지도 모르니 변호사법 위반죄.....

사실 내가 검찰 내에서 겪거나 들은 이런 야리꾸리한 이야기는 실타래처럼 끝이 없다.

색검의 탄생

색검은 검찰의 스폰서 문화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모든 것이 허용되고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자는 없다"는 의식이 결합되어 탄생한 것이라고 본다.

검사의 주변에는 장래에 감빵에 가는 상황에 대비하여 검사에게 보증을 들려는 사람, 검사와의 친분을 팔아서 형사사건에 엮인 사람들로부터 돈을 벌려는 브로커 등 온갖 부나방이 꼬이고 이들은 검사들에게 화려한 밤의 유흥을 기꺼이 제공한다. 검찰은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검사의 여차한 비행이나 비리는 내부로비를 통해 무마된다. 그들 중 다수는 이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운이 나빠서 들뜬 동료들의 이 정도의 비행이나 비리는 언제나 관대해질 수 있고, 이런 경험들은 학습되어 그들의 색검 문화는 온존했던 거라 본다.

이야기 넷 그들의 수익모델 혹은 영업방법

역대 어느 대통령은 국가를 수익모델로 삼았다고 말해진다. 그런데 스케일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지만, 몇몇 검사들은 직무에서 수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도 하는데, 나는 그들의 영업비밀을 적극 공유할 만한 처지는 전혀 되지 못하였고 다만 후일담 격의 이야기 몇몇은 들었다.

그 검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이 검사는 헌신적으로 일하는 검사였다. 경찰에서 수사해서 가져오는 잡다한 형사사건을 처분하는 지계꾼이 아니라,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인지하는 그런 검사였다. 그런데 인지보고서를 작성하기 전 매우 중요한 절차가 있었으니 그건 피의자와의 딜이다. 그 딜의 내용이란 내가 인지할 다수의 범죄 중에 가장 무거운 몇건은 빼줄 테니 내게 얼마를 줄 수 있냐 뭐 이런 거였다.

그 검사는 그러다 전국의 검찰청에서 가장 예쁘다고 말해지던 그 검사실의 여직원(각 검사실에는 현재는 실무관으로 불리는 기능직 직원이 있다)과 바람이 나서 두 집 살림을 유지하느라 더 열심히 일하고, 또 그 후 그 여직원이 임신을 하는 통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자 미국으로 피신을 시키고서 또 더 열심히 일했다고 한다.

이 검사의 경우는 그야말로 일거양득, 일석이조, 도량치고 가재잡고의 격이 된다. 실적도 올리고 돈도 벌고, 게다가 들킬 가능성도 낮다. 어느 사람이 '제 범죄가 아주 중대한 건이 있는데 저 검사가 뒷돈을 받고 봐줬어요'라고 하겠는가. 게다가 범죄 수집 후 입건을 위하여 작성하는 인지보고서에서부터 누락시켜버리니 경찰이 수사해온 사건을 봐줘서 불기소처분을 한다든지, 청탁을 받고 경찰의 영장을 꺾는다든지 하는 것과는 달리 외부에서는 알기가 어렵다.

이 이야기를 전해 주던 우리 부부장 검사의 분위기는 "참 난 사람이지 저런 건 아무나 하지도 못해" 이런 거였다.

우리 부장은(나의 사건에 본인이 끼어들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꺾으시고 미스해운대를 여자친구로 두었던 바로 그 분이다) 덧붙여, 공무원들 중에 먹고 해 주는 놈, 먹고 안 해주는 놈, 안 먹고 해주는 놈, 안먹고 안 해주는 놈의 순서로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였다. 공무원이 뇌물을 먹고도 봐주지 않으면 애썼는데도 일이 안 됐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고마워하는 반면에, 뇌물을 안 먹고도 청탁을 들어주면 이거 당연히 되는 건가보다 라면서 고마워하질 않는다고 했다. 어쨌든 그의 지론은 중뿔나게 뇌물을 거절하고 고고하게 구는 놈이 제일 재수 없고 뇌물을 받아 쳐드시고 청탁을 들어주는 게 검사나 상대방이나 모두 해피하다는 거였다.

공소장으로 국회의원후보 공천신청서를 쓴 검사

총선이나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선거결과를 다소나마 뒤집어 놓을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검찰의 공직선거법위반죄 수사 및 기소이다. 당선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까지 포함해서 일정한 이상의 형이 선고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고, 심지어 당선자 본인이 기소된 경우 피선거권이 10년간 정지되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의 사형선고나 마찬가지가 된다.

이 검사는 공안부가 아니라 공판부 검사였다.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은 수사검사가 공판에도 관여하지만, 거개의 사건은 공판부 검사가 공소유지 업무를 하는데, 이 검사는 기소된 특정 정당 당선자 캠프의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관하여 무죄를 받도록 마사지를 했다. 수사검사가 증거를 다소 미흡하게 갖추어 기소를 한 사건인 경우에는 조그만 노력으로 보강할 수 있는데 방치하고, 유죄가 나올 사건이면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공소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않는 사실로 바꿨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한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죄가 안되는 사실들로 구성해버리면 무죄가 나는 것은 뻔하다.

법원의 재판부는 그 검사의 공소유지업무 수행에 의아해했고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검사일까 특정 정당과 결탁을 한 것일까 종잡을

수 없었는데, 2~3년 후 그 검사가 그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고 출마하자 이제 명확히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분은 여의도에 무사히 입성하셨는데,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이라 이런 저런 소란만 잔뜩 야기하고 의미있는 활동은 전혀 하지 못했다.
 큰 도둑은 작은 도둑을 잡지 못한다
 지금은 없어졌다고 들었지만 내가 검사이던 시절에는 아직도 전별금이란 게 있었다. 검사가 임지를 옮길 때 그 지역유지나 변호사들이 석별의 정으로(?) 봉투를 안기는 것인데, 금액은 권력의 크기 순이었다. 차장검사나 부장검사 급이면 아파트 평수를 넓혀줬다거나 전세에서 자가로 옮겨줬다거나 하는 이야기가 나돌았다.
 어떤 검사장은 커다란 쇼핑백을 검사장실에 놔두고 전별금봉투를 챙겨 담았는데, 어느 날 이 쇼핑백이 검사장실에서 사라졌다. 검사장은 그 시기에 거액의 돈이 검사장실에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내부인일 수 밖에 없다고 여겨 내부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족쳤지만 찾을 수가 없었고, 도난신고를 하는 것도 포기했다. 관행이란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땀땀한 돈은 아니었기에 신고는 할 수 없었던 거다.
 검찰은 위로 갈수록 그 권력의 크기만큼 더 중대한 비위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내부통제란 것은 현실성도 실효성도 없는 이야기이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찍으라고 지시한 그 부장이 만일 내가 사건에 장난질을 했다면 꾸짖을 수 있을까. 혹시 그랬다해도 “그럼 부장님은 그 때 왜 그러셨는데요”라며 입닥치라는 내밀한 협박이나 받을지도.
 최근에야 나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이 있다는 걸 알았다. 그런데 거쳐간 단장이 무려 이인규(2005년)와 진경준(2011년)이었다. 참 웃됐다.

이야기 5-1. 검사, 야 너네들이 인권을 알아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추행의 억제 및 여성노동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면, 검찰 내에서 여성검사 및 실무관들의 근무조건은 매우 열악하다고 본다. 검찰이 직급에 따른 위계질서가 매우 강하고 남성중심의 문화가 지배하는 곳이어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암튼 이야기를 풀어보자면

참은 검사의 경우 - 나는 잡탕밥이 싫어요.

까마득하게 하늘같이 여겨지던 검사장이 새내기였던 어느 여검사를 갑자기 검사장실로 호출했을때, 그 검사는 자신이 업무에서 무슨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긴장했다. 그러나 그 검사장은 자신의 딸이 그 검사와 동갑이라면서 가끔 자신과 등산을 같이 가자고 했다. 그 검사는 속으론 "내가 왜 당신과 같이 등산을 가야 하는데"라고 생각하고 차마 빈말로도 예라고 대답을 못한 채 애매한 표정만 짓고 말았다.

그 며칠 후 검사장은 검사실로 전화를 해서 내일 자신의 관사로 오라면서 주소를 불러주었다. 그 검사는 검사장이 새내기 검사들만 부르거나 부단위로 불러서 모임을 가지나 생각했지만, 검찰청 주변의 식당이 아닌 관사로 오라고 한 점이나 공지의 형식으로 모임이 안내되지 않고 검사장이 자신에게 직접 전화를 한 점이 맘에 걸렸다. 그러나 검사장이 오직 자신만을 관사로 불렀을 가능성은 전무했고, 혹시 본인이 아끼는 검사만 챙겨서 불렀는데 청내에 소문이 퍼지면 곤란해서 그런가보다 맘대로 생각하고(물론 그렇게 생각해도 본인이 왜 그 리스트에 들었는지는 이해 안 갔지만) 더 이상 고민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그 전무한 가능성은 현실이 되었다. 검사장은 근처 중국집의 잡탕밥이 맛있으면서 잡탕밥과 소주를 시켜 주었다. 잡탕밥은 지독하게 맛이 없었고 그 검사는 어떻게 이 상황을 빠져나가야 하나 하는 생각뿐이었다. 검사장이 소파 옆으로 바짝 다가와 앉았을 때 그 검사는 소주병과 소파 옆 협탁에 놓인 전화기의 위치를 눈으로 파악했고 무슨 일이 생기면 물건들로 일단 머리를 내려친 다음 112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그 검사장은 얼굴을 바짝 들이던 다음 '자네 눈이 차암 예쁘군'이라고 했고, 그게 다였다.

그 검사는 그 날 이후로 검찰청에 출근하면 두통과 불안감에 시달렸다. 검사장에게 대면결재권이 있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각 검사실에는 검사장의 부재와 입실여부를 알려주는 입실등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불이 켜져 있으면 마음이 불안해졌고 불이 꺼져 있으면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검사장이 "애는 어디까지 되나"라면서 스물스물 아주 교묘하게 밀어붙였다고 생각되었다. 첫날 등산을 가자는 제의에 명확하게 노라고 하지 않은 것, 둘째 관사에서 즉시 나오지 않고 그 어색한 시간을 견뎠던 것이 여지를 주었다고 생각되었다.

얼마 후 주말에 검사장은 전화를 했고, 일요일에 XXXX호텔 일식당으로 나오라고 했다. 그제서야 그 검사는 단호히 거절하면서 개인적인 만남을 요구하시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 것 같다고 말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 뒤에도 한동안 그 검사장이 앙심을 품고 자신에게 직장에서 해꼬지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다.

그런데 그 검사장은 나중에 국회의원으로 변신해 있었고, 그 검사는 그 자가 국회의원 공천신청을 한 것을 미리 알았다더라면 공천심사장에 가서 깽판을 쳤을텐데, 참 개나 소나 국회의원을 하네라고 생각했다. 그 자가 국회의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 이유는 그게 다가 아니었다. 기능직 공무원이던 운전기사의 이야기에서도 그 자의 성품을 알아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검사장은 언론사 기자 등등과 매일같이 모임이 있다시피했는데, 길이 막힐 때 마다 운전기사의 뒤통수에 대고 폭언을 해댔고 모임이 끝나고 나서 호출했을 때 조금만 늦어져도 또 폭언을 했다. 기자들에게는 와인이나 특산물 등을 명절마다 선물로 챙기면서 기사에게는 인색하기가 그지 없었다. 어느날 그 기사는 결국 쌓인 게 터져서, 호출을 했으나 늦은 자신을 비난하는 검사장에게 "검사장님, 저에게 식사하고 주차하라고 주신 돈으로는 여기 주차비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멀리 떨어진 데 가서 차대고 밥먹었습니다"라고 남들 다 보는 데서 대거리를 질러버렸다. 그 운전직 공무원의 무용담(?)은 그 청에 돌고 돌아 모든 검사들이 그 운전기사의 용기에 감탄을 보내고 사람들 앞에서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했다던 검사장을 썸통으로 여겼다.

검사장과 정당의 공천심사를 욱하던 그 검사는 2014년 봄 안산합동분향소 아이들의 영정사진 앞에서 눈물을 쏟으면서 아이들에게 속죄했다. 이제까지 변명하고 회피해 왔지만,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세상을 나쁘게 만들어온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걸 고백했다. 그리고 그 검사는 아직도 잡탕밥을 지독하게 싫어한다.

참지 않은 검사의 경우

그 부장검사는 부회의마다, 점심자리마다 자신의 성적 무용담과 음담패설을 늘어놓았다. 그 부에 속해있던 여검사는 부장에게 그만하시라고 여러번 좋게 말했지만, 그 부장은 "아니 처녀일 수록 이런 걸 더 잘 알아야 해"라면서 요지부동이었다.

퇴근 후 관사에서 혼자 지내기 쓸쓸하다며 관기제도가 필요하다거나, 본인이 최고 성교시간 기록이 여섯시간이라거나, 자신의 고추 맛을 보면 여자들이 모두 정신을 못차린다고 그 부인은 본인이 지방발령을 받으면 우울증에 걸린다고, 머 이런 잡소리들을 늘어놓았다.

그 검사는 청내 여러 검사들에게 호소했지만, 그 검사의 소속 부서를 바꾸어 주도록 해보겠다고. 혹은 그 부장검사의 인사이드가 곧 있을 테니 참으라거나 그게 다였다. 인권감찰을 담당하는 부장검사도 자신을 외면하자, 그 검사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저항하기로 했다. 항의하는 의미로 그 부장검사가 주재하는 부회의에도 나가지 않았고, 점심도 따로 먹었다.

그런데 나중에 다른 검찰청으로 옮겨왔을 때 그 부장검사가 자신의 뒤에서 해 놓은 모략질을 알게 된다. 그 검사를 음해하려고 자신의 연수원 동기 등등의 부장검사들에게 목쓸 악평을 퍼뜨려 놓은 것이었다. 자신의 새 부장검사가 술 자리에서 "소문만 듣고는 나는 자네가 대단히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어. 이렇게 일도 아무지게 잘 하는데 왜 그러지. 처음에 다른 부장들이 소문만 믿고 다 안 받겠다고 했었지"라고 발설한 덕에 그 검사는 자신의 등뒤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게 되었다.

그 가해검사는 나중에 인사에서 미끄러졌는데, 잘 나가던 검사가 주저앉은 이유는 첫째는 여러 차례 해외여행을 갈 때 스폰서로부터 지원받은 게 화근이 되었고, 둘째는 그 피해검사가 승진을 시키면 가만히 안 있겠다고 언론제보도 불사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닌 거라고 들었다.

하지만 이 비열한 검사님은 여전히 잘 살고 계신다. 변호사개업을 해서 엄청나게 굶직굶직한 사건에 담당변호사로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검찰개혁방안에 관한 토론회나 언론에 게재하는 글에서 오랜 검찰경력을 바탕으로 검찰개혁 방안에 관하여 공수처는 불필요하고 내부통제로 충분하다며 역설하고 계신 것으로 안다. 반면에 그 피해검사는 검찰 내 모난 돌로 찍혀서 좋은 보직은 애시당초 물 건너 갔고, 너네들이 생각하듯 부장검사의 성희롱에 항의한 것이 미친 짓이라면 "이 구역 미친 녀은 나인 걸로 하지 뭐" 이런 정신으로 살고 있다.

이야기5-2 검사 너네들이 인권을 알아

올 11월 7일 변창훈 검사의 자살 이후, 검찰 내에서 아침에 그 맥 자녀들이 있는 자리에서 압수수색을 한 것에 대해 인권배려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성찰이 있었다 한다. 차암 세심하시다. 이금로 법무부차관은 국회법사위에서 인권보호에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토로했고 팀원 교체까지 언급되었다. 실제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정말 그들이 생경했다. 내가 겪어 본 그들의 모습은 이러했으므로

비명이 끊이지 않는 서울검찰청의 복도

2002년에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강력부의 흉모 검사실에서 살인사건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구타로 숨졌다. 흉모 검사가 구속되어 실형을 받았고 그 여파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물러났다.

올 10월 그 시절 강력부에 속해 있었던 분을 만난 자리에서 그 일이 우연히 언급되었다. 그런데 그 분이 "그렇게 내가 작작 하라고 했는데"라고 하는 것이다. 그 검사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알고 있었냐고 묻자,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매번 비명이 복도에서 들리는데. 출근해보면 기관도 아니야. 한눈은 밤새 때리다 지쳐서 소파 한쪽에 잠들어 있고 한눈은 맞다 지쳐서 소파 다른 쪽에 잠들어있고. 뭔가 밤새 소독이 있었냐고 물어보면 별거 없었대. 그래서 내가 소독도 없는데 작작 좀 하라 그랬지" 라고 말을 이었다. 들어가서 형사판결문을 확인해보니 검사실에서 백주대낮에 구타가 이어졌고 피해자만도 8명이었다.

검사실에서 고문이 벌어졌고 그 층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검찰청 내 소문을 통해 검찰청 전체가 알고 있지 않았을까도 싶지만) 침묵의 카르텔을 유지했다. 그들 중 몇몇은 아직도 검사를 하고 있을 것이다. 자신들이 알고도 막지 못한 그 피의자의 고문치사에는 검사들 중 누가 사죄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변창훈 검사의 죽음에는 유독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지 못한 데 대해 지극한 유감과 애달픔을 느끼는 것이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은 검사의 죽음

2016년 어느 부장검사의 혹독한 대우에 못 이겨 젊은 검사가 자살을 했다. 검찰은 진실을 감춘 채, 내성적인 성격의 그 검사가 업무스트레스에 자살을 택한 것이고 남부지검 형사부에 검사를 증원해서 검사들의 업무부담을 줄이겠다고 대책을 내놓았다. 그렇게 사건을 덮고 가려 하였으나, 그 젊은 검사가 친구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가 언론에 공개되고 연수원 동기 수료생 990명 가운데 700여명이 진상조사를 요구한 끝에 어렵사리 진실이 일부 가려져 부장검사는 해임처분을 당한다.

사실 그 부장검사는 아래 사람들에게 모질고 혹독하기로 검찰 내 세 손가락안에 들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었다(즉 두 손가락은 아직 검찰에 있다).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직원부터 검찰청 내의 공익법무관, 부원에 이르기까지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부원들끼리 식사를 하겠으니 자리를 예약해달라고 했는데, 잡아 둔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자 다 보는 앞에서 구내식당 직원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도록 혼을 낸 일도 있어 그 부장검사의 성질머리는 꽤나 유명썩했다. 하도 여러 말들이 들리니 차장검사도 몇 개월 전에 구두로 경고를 했었다 한다. .

변창훈 검사의 자살 이후 일부 검찰청들은 예정된 체육행사 등을 취소하여 추도분위기로 몰고 가고 이프로스 게시판을 변 검사에 대한 애도 글로 도배되었지만, 그 젊은 검사의 자살 직후 이프로스게시판에 어느 한 검사가 올린 추도글에 별 반응이 없었다.

그리고 자살사건의 뒤처리로 골머리 썩고 있는 검찰총장을 위로하기 위해 모 지방검찰청의 검사들은 그 청을 방문한 검찰총장을 위해 "캔디 캔디" "태권브이" "마징가제트" 메들리에 맞추어 율동을 선보였다는 후문이 있다. 이전에 법무부장관의 방문시에 검사들이 법무관들을 시켜 태권브이 노래에 맞춰 율동을 선보였는데, 검사들이 총장의 방문 이벤트에 맞춰 다시 한번 하라고 요구했으나, 법무관들이 두번은 못하겠다고 거절해서 검사들이 직접 나서게 된 거다. 재능있는 검사님이 안무를 짜서 업무 틈틈이 연습을 시켰고 열정적인 어느 검사는 검찰청 복도에서까지 연습을 했다 한다.

그렇다. 대한민국 검사라면 상심한 총장을 위해 "괴로와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노래에 맞춰 감직하고 양증맞은 율동도 선보일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검사라면 일개 검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것과 총장의 심란한 마음 달래기 중에 뭘이 중헌지를 단번에 알아야 한다.

게다가 검사님들은 충성의 안배도 현명하시기가 그지없다. 법무부 장관 방문 때에는 왜 1곡뿐이고 총장은 메들리로 행사를 했냐 하니, 짐작컨대 법무부장관은 언제라도 날아갈 수 있지만 총장은 2년의 임기가 있고 법무부장관이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더 잘보여야 한다는 거다. 정말 포지셔닝에 능한 검사들 아닌가.

아무튼 나는 검사들의 인권의식과 동료애 혹은 측은지심이 이렇게 편중되게 발휘되는 것을 도통 이해할 수가 없다.

이야기 6 : 비루하고 비루한 그들

검사들의 시선은 항상 위를 향해 있다 그들에게 대검찰청, 법무부의 꽃보직을 내려주고 근무평정을 내려주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외부의 권력이든 내부의 권력이든 항상 바짝 엮드려 미리 나서서 윗분들의 평안을 도모해주는데 여념이 없는데,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아니꼽고 치사하고 더러운 꼬라지들을 보게 된다.

조작에 능한 그들

술자리에서 부장검사나 차장검사 옆에 앉아 있다가는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제법 있다. 톱살롱에서 유흥을 자주 즐기시는 분들이라 보니 술에 만취하면 구별이 안 되는가 보다 싶다. 어떤 검사가 술자리에서 부장검사에게 난데없는 키스와 포옹을 당하고 나서 황당하고 더러운 기분으로 출근한 어느 날이었다. 그런데 어제 술자리에 동석한 수석검사는 그 여검사에게 "O검사, 아무리 부장님이 좋아도 그렇지. 그렇게 끌어안고 뽀뽀를 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것이었다.

어젯밤 자신이 어제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을 다 보고서도 그런 말을 하니 황당할 뿐이었지만 그 수석검사는 "시끄럽게 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라는 메시지를 확실히 준 것이었다.

아부에 능한 그들

늘 자신의 정력을 자랑하며 여자들이 자기 고추맛을 한번 보면 정신을 못차린다고 하던 형사부 부장이 어느 날 '주말에 집에 갔더니 티비에서 보고 싶은 영화를 시작해서 보고 있었는데, 부인이 사인을 주더라. 정말 귀찮아서 이제까지 한 것 중에 가장 짧게 하고 나왔는데 영화가 이미 끝나 있더라'고 예의 그 자랑을 했다. 그 부의 유일한 여검사는 얼굴을 찌푸렸지만, 동석한 검사들 중 하나가 "부장님 그 영화 어엄~청긴 데 말입니다"라고 하는 것이었다. 부장의 정력에까지 아부하는 참 참신한 검사였다.

나를 가장 황당하게 한 아부사는 따로 있다. 검사들과 직원들이 별로 신망하지 않는 검사장이 있었는데, 송년모임 술자리에서 우리 부장이 그 검사장에게 "검사장님, 저는 검사장님을 앞으로 세번 더 모시고 싶습니다. 한번은 대검찰청에서, 한번은 법무부에서 마지막 한번은 청와대에서 모시고 싶습니다"라고 했다. 즉 그 검사장에게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대통령이 되라는 말씀이다. 물론 충성을 다하겠으니 자신을 거기다 끌어달라는 바램도 깨알같이 들어있다.

나는 영혼이 0.00000001 밀리그램도 없어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아부사에 혼이 안드로메다로 가는 것만 같았다. 훌륭한 검사장에게 그 같은 아부를 해도 오글거릴 것 같은데, 진심이 1도 없는 그 같은 아부를 바치고 있는 비위좋은 부장이나, 그걸 듣고 흐뭇해 하는 검사장이나 참 보고 있기가 힘들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부사는 그다지 독창적인 것도 아니어서, 예전 어느 검사가 지어낸 이래 제법 통용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렇게 알팍한 권력놀음에 취해 있었다.

타인을 희생시키는 데 능한 그들

연수원 1기 앞선 검사가 있었는데, 그 검사는 술자리에서 언제나 부장과 차장으로부터 멀찍히 앉으려는 후배여검사들에게 "O검사, 부장님 옆에 앉아야지"하고 지시했다. 술자리에서 부장검사나 차장검사 바로 옆자리에 있다가는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가 앞장 서서 자리를 정리했는데, 왜 그 때는 아무런 기백도 패기도 없이 시키는 대로 했는지 모르겠다. 1기 앞서는 게 무슨 대단한 권력이라고, "부장님과 좋은 얘기 많이 나누시게 선행님이 거기 앉으세요"라고 말하지 못한 게 지금도 좀 많이 후회스럽다.

어느 검사는 차장검사로부터 재판을 청구해야 할 중한 사건에 대하여 어이없게 기소유예를 하라는 압력을 받았다. 그런데 그 차장검사는 차장실에 그 검사를 불러다 놓고서는 그 사건 이야기를 하던 자리에서,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으면서 아무런 숨김도 거리낌도 없이 "네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소유예 될 겁니다"라고 했다.

그런데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나중에 드러나 문제가 될 경우에 지시를 따랐을 뿐인

검사는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지시를 내린 바로 그 자가 구두지시여서 아무런 증거가 남지 않았다는 점을 자신한 나머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담당검사에게 "자네 왜 이렇게 일을 처리했나"라고 추궁하기도 한다는 거다.

웁음을 따르지 않고 자리에 연연하며 권력을 따르는 그들은 참 비루하게 보였지만, 정작 그들은 그 자신의 비루함을 모르는 듯 했다.

이야기 일곱 : 부패는 전염된다

검사들은 98년 및 99년 불거진 대전법조비리, 의정부법조비리 이전만 해도 스폰서를 공공연히 후임자들에게 인계해주었다고 한다. 검사들은 대개 2년마다 임지를 옮기는데 임지를 옮기게 되면 해당 지역에서 알게 된 스폰서의 뒤를 봐줄 수 없게 되므로 그러했다나. 그렇다고 뿌리 내린 스폰서 문화가 없어질 리는 없다. 암암리에 인수를 해주는 일도 있고 또 부장님들은 오래된 스폰서들을 술자리에 자주 불러내곤 해서 부장님의 스폰서를 만나게 되는 일도 많았다.

부장님의 베프

어느 부장님은 검사들끼리 모이는 술자리에 꼭 어느 대기업 계열사 임원을 불렀다. 그 임원은 자신의 양복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부장님

에게 고이 바쳤고 그 때부터 그 지갑은 부장님 것이 되는 거다. 지갑 안에는 미리 준비를 해왔는지 10만원짜리 수표가 빼곡히 들어 있었고, 부장님은 그 부 검사들 중에 누가 재치있는 말을 한다든지 노래를 맘에 들게 부른다든지 하면 10만원짜리 수표를 용돈으로 안겼다. 그리고 헤어질 때에도 택시비 하라고 부원들에게 10만원 수표를 뿌렸다. 그 날 밥값, 술값도 그 임원의 돈으로 계산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 부장은 그 대기업이 후원하는 대형스포츠이벤트가 있으면 VIP티켓을 부원들에게 뿌렸고,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을 실무관들에게 투척해서 실무관들이 무척 좋아했다. 그 부장님은 검사를 그만 둔 후 그 대기업 계열사의 법무팀장으로 갔다. 아마도 검사를 하실 적에 여러가지로 은혜를 베푼 일이 있어서 그렇지 않겠냐고 아무런 근거없이 추측해 본다. 한편 부장검사들이 부원이나 수사계장들과 친목질을 하는 것은 나중에 변호사개업을 대비한 작업일 때도 있었고, 심중에 곧 개업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더욱 열심이었다. 그런데 이걸 또 남의 돈으로 이렇게 살뜰히 하시는 것이었다.

스폰서나 브로커는 인내심있게 오랜동안 관계를 갈고 닦아 놓는다. 촌발 날리게 무슨 일이 터지고 나서 수천만원, 수억 싸들고 와서 잘 봐달라고 부탁하지 않는다. 그렇게 대가관계가 명백한 돈은 아무리 자기들끼리 서로 봐주는 데 능하고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사들이라지만 부담스럽다. 검사가 스폰서나 브로커와 베프가 되어 엮이는 이러한 관계는 나중에 무마시켜 준 사건이 드러났을 때에도 검사가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편의를 봐준 것 뿐이다, 부정한 경제적 대가가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변명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 유명한 변명 "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처럼 검사들은 스폰서로부터 접대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사건처리와 관련해서 절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자신하게 되는 거다.

기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미천한 나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싶었는지 어쨌는지 자신이 길러온 검사에 대해 자랑하는 경우가 있었다. 텔레비전에 어떤 검사장이 비치자 그 분은 "예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본인데 검사장 승진 축하금으로 내가 1억원을 드렸다. 아주 친한 분이니 변호사님도 필요한 일이 있으면 서슴치 말고 말해도 된다"고 했다. 그 분은 내가 페이스북에 자기가 한 이야기를 써부리고 있는지는 꿈에도 모를거다. 암튼 뇌물은 때로 선불 적립식일 수도 있다.

어느 끈떨어진 부장검사의 경우

한직인 고검 검사로 오래 있게 된 부장검사가 예전의 부원들을 점심자리에 청했을 때, 참석하지 않으면 그 부장검사가 더욱 자존심에 상처를 받을까 두려워 검사들이 모두 왔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모 저축은행의 임원이 와 있었다.

아마도 그 부장검사가 고검에 오래 있게 되면서 스폰서가 서서히 홀대를 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싶다. 그 부장검사는 자신의 이용가치를 열렬히 어필하기 시작했다. "여기 이 검사는 지금 대검에 있는 누구고, 저 검사는 중앙지검에 있는 누구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중앙지검에 있던 한 검사에게는 "000 저축은행 회장님이 지금 구치소에 있는 것 자네 알지. 자네 방에서 특별면회 가능하지"라고 말했다. 특별면회는 검사가 조사를 핑계로 피의자를 구치소에서 불러내서 자신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검사실에서 편히 시간을 죽이다 가게 하는 거다. 임원들이 서류를 가져와 결재를 받기도 하고 구치소에서 그리워하던 스타벅스 커피도 마시고 하면서 말이다. 이날 검사들은 부장의 스폰서로부터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병풍으로 동원된 것 같은 쓸쓸한 기분을 느끼면서 돌아갔다.

그 좋은 룬살롱에 안 데려가니 어쩌면 좋으카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에서 검찰시보를 하던 시절 지도 검사실의 계장님은 검사님에게 불평불만이 많았다. 지도검사님이 자리를 비우면 항상 꾸얼꾸얼거리거나 툅툅했다. 이 검사님은 부인이 로펌의 변호사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분이라 아들 둘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6시 땡하면 곧바로 퇴근하는데, 그 전 검사실에서 일하던 때에는 검사가 자주 룬살롱에 데려갔던 모양이었다. 그게 불만의 원인이었다.

나에게 "시보님, 룬살롱 가보셨어요? 제가 진짜 처음 룬살롱에 갔을 때 눈이 휘둥그래졌어요. 배우 뺨치게 예쁜 여자들이 막 있는데, 제가 제 파트너 손을 잡고 아니 어떻게 테레비에 나오셔야 할 분이 왜 여기 있냐고 눈물을 흘리면서 물어봤어요"라고 말했다. 아마 이 분은 누가 룬살롱에 몇 번 데려가 주기만 한다면 수사정보나 향후 수사계획도 다 알려줄 것 같이 느껴졌다.

내가 본 검찰은 이렇게 위로부터 서서히 부패로 물들어 내려오고 있었다.

대한민국 검사들을 보며 자베르를 떠올리다

내 어릴 적 감상으로, 레미제라블의 등장인물 자베르는 아주 나쁜 놈이었다. 어린이도서(제목이 "장발장"이었던 것 같다)에서는 자베르를 그저 장발장을 죽도록 쫓아다니는 냉혹한 경찰관으로, 마치 밀가루 반죽을 밀대로 짜악 내려누른 듯 평면적으로 묘사했다. 그를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은 어른이 되어 다섯 권으로 된 책을 읽고 나서다.

범죄자의 아들로 감옥에서 태어나 출생에 대한 콤플렉스로 범질서의 수호를 자신의 사명으로 뼈속 깊이 새긴 남자. 현실의 범질서가 곧 정의라고 믿으며, 사회구조나 범질서에 결함이 있을 수 있고 정의는 현실의 범질서를 넘어선 곳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품어 본 적이 없는 남자. 현실의 질서가 사람의 가치에 맞는 정당한 몫을 준다고 믿기 때문에 길거리의 창녀와 발코니 딸린 4층짜리 석조주택을 가진 자 간에 다툼이 났을 때, 길거리의 창녀는 당연히 거짓말을 하고 많은 재산을 가진 훌륭한 시민은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고 판단하는 남자. 이 남자는 장발장이 자신을 시민군들로부터 처형될 위기에서 구해주었을 때 자비를 거절하고 "당신은 나를 너무 괴롭히는군.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라고 말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가 아름답고 숭고한 사람이었음을 생각해보게 되었다. 대한민국 검사들 때문에.

자베르는 범죄자의 아들이라는 태생의 낙인을 지우기 위해 현실의 범질서를 신봉하고 이를 완전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여긴다. 그리고 교도관과 경찰관으로서 범질서를 집행하는 데 헌신한다. 그러나 우병우나 국정원에 파견된 세 검사들은 범마저 우습게 여기며 농락했다.

자베르는 엄격한 범질서의 수호를 자신의 사명으로 추구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검사들은 더 많은 권력과 더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한 욕망에 의해 움직일 뿐이고, 숭고한 사명 같은 건 애당초 없다.

자베르는 법이 구제불능의 범죄자로 규정하고 그래서 자신도 악한으로 믿고 있었던 장발장이 자신을 구해주자 혼란에 빠진다. 장발장이 실

은 자비롭고 선한 사람이 아닌가 라는 생각, 내가 법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 부당한 괴롭힘과 박해가 아니었던가 하는 깊은 고뇌와 회한에 빠진 것이다. 결국 자베르는 장발장을 놓아주는 것으로 자신이 신봉해오던 법질서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배반하고, 자신의 양심과 법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양심에 순응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검사들에게 지난 9년 세월에 대한 진정한 성찰과 각성이 있을까? 나라의 법질서가 문란해져 망할 뻔했고 시민들의 단결된 힘으로 겨우 일으켜 세웠지만 그들의 부역에 대하여 제대로 된 성찰을 나는 아직 보지 못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 우리가 무슨 잘못이냐”는 어이없고 기가 막히는 변명과 투정을 들었을 뿐이다.

이제까지 그들이 보여준 모습에서 내가 추측하는 검찰 내부의 풍경은 이와 같다.

여러 검찰개혁방안이 거론되고, 검찰과거사 위원회가 발족되어 정연주 KBS 사장 기소나 피디수첩 사건 등을 다시 들여다본다고 하지만, 이들은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국면이 바뀌길 기다릴 것이다. 소를 물가를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고 그들이 내부에서부터 바뀌지 않으면 안 되지만, 이들이 그리는 그림은 시간을 끌다가 문재인 정부의 지지도가 떨어져 개혁의 동력을 잃고 그러다가 유아무야 되어 결국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검찰의 내부 부패와 비리에는 눈감아주는 그런 정권으로 교체되는 것이다. 시간은 자신들의 편이고, 여기서 자신들의 과거 잘못을 다 털리고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여기겠지.

권력의 비위에 맞추어 사건을 해결해주고 동아줄을 타고 올라가 퇴직 후에는 전관예우를 누리는 편한 삶이 있는데, 왜 지난 날의 과오를 고백당하고 개혁되는 선택을 하겠는가 말이다. 게다가 검찰이 투명해지는 것이 이들에게는 너무나 곤란하다. 전관의 힘이란 것은 정말 놀라워서, 마약제조범이 마약소지죄로 의욕되고, 뺑소니운전이 단순 교통사고인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죄로 둔갑을 하고, 누가 실제 업주인 지 뻔히 알지만 업주의 계획대로 마지사장만을 구속시키는 힘을 발휘해서 평생 번 돈보다 변호사개업 후 6개월 내에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그 꽃길에 자기 눈 앞에서 사라지는데 어떻게 저항하지 않을 수 있을까. 자신의 선배들이 누려온 이 유구한 아름다운 전통이 하필이면 자기 눈 앞에서 끊기는 불운을 맞볼 수는 없지 않는가.

법질서가 구제불능의 범죄자로 규정한 장발장이 원수인 자신을 구해주자 자베르의 오랜 세월 형성해온 신념체계가 무너진다. 국민들에 의하여 선출되지 않은 비선실세가 꼭두각시 대통령을 조종해오고 검사들은 그 비선실세의 그 조악한 지배에 범죄까지 저지르며 협력해 온 것인데, 검사들에게는 이것이 설마 자베르를 무너뜨린 그 충격에 비하지 못할 것이었던가.

이제까지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피고인의 재심개시신청에 따라 법원이 재심개시결정을 하면 즉시항고로 불복을 하고, 실은 유죄구형을 하고 싶으나 외부의 시선이 두려워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 주십시오”라고 백지구형을 한 다음 무죄 선고가 나오면 상소를 하던 관례를 따르면서 한 공판부 검사의 무죄구형을 맹렬히 비난했던 한 공안검사가 있다. 그는 지금은 180도 뒤바뀐, 과거사재심사건에 관하여 국가가 직권으로 재심청구를 하고 필요한 경우 무죄구형을 해야 한다는 지침을 정립하고 있다고 들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 우리가 무슨 잘못이냐”는 어이없는 변명을 하는 검찰 내에서 과거의 업무관행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성찰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을까.

그 공판부 검사가 법정에서 무죄구형 전에 했던 “그 엄혹한 시절 당신의 가슴에 법의 이름으로 새겨진 주홍글씨를 이제 법의 이름으로 지워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말 속에 담긴 절절한 사과를, 그 한마디 말이 너무나 감사했다고, 지난 시절 겪었던 고통에 대해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고 깊은 고마움을 표시한 재심사건 당사자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100분의 1이나마 헤아리고 있을까.

자베르가 안고 갔던 통렬한 고뇌와 회한을 아프게 느낀다. 그는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올해의 결심 - 웃으며 화내기

변협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면, 전관 출신의 여유로운 변호사님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 같은 법조인 앞이라고 정신적으로 무장해제가 되지는 어찌는지 여러 말들을 듣는다. 60대의 두 분 변호사님들로부터 "제가 형사 단독 판사 시절에, 자동차 몰고 나와서 사고 낸 아줌마들에게는 벌금을 아주 세게 물렸어요. 집안에서 얌전히 밥이나 할 것이지 왜 여자가 차를 몰고 나와 나대다가 사고를 낸답니까", "길가는 행인의 가슴을 움켜잡았다고 강제추행죄로 왔어요. 제가 배석들과 합의하는 자리에서 이 정도가 강제추행이 되겠냐고 의문을 제기했더니 여자 배석 판사가 길길이 뛰어요. 이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 너무나 경악스러워 뭐라 대꾸하지도 못했다.

여자는 밤에만 쓸모가 있다거나 설겜이는 당연히 여자가 하는 거고 남녀의 일은 하늘이 정해준 것이라고 말한 모 야당의 대표도 법조인 출신이니, 현직 법조인들 중에 그 야당 대표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게 크게 놀라운 일이 아닌가 싶기도.

사실 법관도 인간인지라 본인의 경험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어떤 형사단독 판사는 특히 "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해서만 형량이 무척이나 쏠았다. 검사들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기를, 그 판사의 집에 절도범이 침입한 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도둑맞은 물건은 별 것 없지만, 온 집안의 서랍이 뒤집어져 있고 살림살이를 헤집어 놓은 것을 목격하고서, 가장 내밀한 생활의 터전이 털린 불쾌감과 기회를 보아 다시 침입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고, 그래서 동종범죄에서 의 피해자에 공감했기 때문인 것 같다. 이런 경우는 성적, 정치적인 편견을 가지고 판결하거나 가장 나쁘게는 이해관계에 따라 판결하는 법관들보다 이해가 가긴 한다.

이제부터 내가 이제까지 만난 법조인들 중에서 역대급으로 불쾌했던 분의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한다.

그 분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어느 민사부 부장님이셨다. 꽤 소가가 큰 사건에서 유독 우리측에게만 퍽퍽거린다고 법인 내에서 말이 돌았고, 대표가 인사를 안 가서 그런가보다고 말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법관들에 대하여 환상을 갖고 있던 터라 "설마 그럴라고, 잘못 짚으신 것 아닌가"고 생각했지만 나의 생각이 틀린 거였다.

삼성동의 고급식당에서 저녁을 대접하게 되었는데, 그 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는 변호사들하고 참 관계가 돈독했었는데, 요새는 참 삭막해. 내가 지방에 있을 땐데, 퇴근해서 혼자 우두커니 관사에 앉아있으려면 너무 재미없지. 그래서 퇴근 후 항상 술집에 가는 거야.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하면 그 중 몇몇은 꼭 야근을 해. 그러면 와서 술을 사 주고 그랬지. 지금은 자동차 손해배상사건이 민사단독이지만 그 때는 합의부 사건이었거든. 술을 잘 사주는 변호사가 맡은 사건이면 배석

에게 야 위자료랑 과실상계 좀 잘 해줘 이러는 거지. 일실수입이나 소득은 객관적으로 평가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위자료나 과실상계는 법원 재량이잖아"

그때 나도 모르게 표정이 사나워졌던 것 같다. 그러자 그 부장은 변명을 했다. "자동차 손배사건이니까 피고가 일반인이 아니라 보험회사지. 보험회사는 돈 많으니까 별 상관없잖아"라고.

나는 화를 잘 못낸다. 화를 내는 것이 힘들고 어색하고 또 겁이 난다. 그리고 평소에도 말을 조리있게 잘 못하는데 화가 나면 더 그렇다. 그렇지만 나는 그 때 그 바보에게 웃으며 화를 냈어야 한다.

"자기가 한 행위가 공동체에 해를 끼친다는 걸 생각하실 능력이 안 되시니 참 속은 편하시겠어요. 보험회사는 땅파서 장사합니까. 수취한 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비율이 높아지면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이 나빠지고 그러면 보험료를 올려야 하죠. 대부분의 판사들이 부장님같이 변호사에게 접대받고 보험회사는 돈 많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판결하면 보험계약자들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보험계약자들 돈으로 술을 쳐드시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어쨌든 그걸 사고할 능력이 안 되셔서 해맑으시니 차암 다행입니다"

이건 마음속의 대사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말하지 못했다.

원래 식사만 대접할 생각이었고 대표가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라면서 자리를 파하는 대사를 치고 있는데, 이 부장이 난데없이 테이블에 프로모션용으로 놔둔 샴포 무통 로셴드를 잡으며 "이거 좋은 와인인데"라고 했다. 결국 와인까지 뜯겼다.

그리고 식당을 나오며 정말 작별을 고하려는데, 이 부장이 회원제로 운영하는 호텔바의 회원인데 키펙해 돈 술이 있다면서 가자고 하는 거다. 역시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키펙해 돈 술의 양은 얼마되지 않았고 술까지 더 사야 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그 부장이 배석들에게 "너희들 내가 개업한 다음에 찾아와서 이 사건만은 어떻게 해도 봐줘 이러면 무조건 봐줘야 한다"고 하고 날린 데서 시작했다. 훌륭한 배석들은 "부장님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니겠습니까"라면서 대답을 회피했고, 이 부장은 진짜로 심하게 빠치고 노했다. 우리들은 냉랭하고 어색해진 분위기를 견디느라 무척 힘들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배석들이 법원을 그만두고 변호사개업을 한 것을 보고 나는 그 부장판사의 사건을 봐주기가 싫어서 부장판사보다 먼저 변호사개업을 했나 보다고 맘대로 생각했다.

그 때 난처해진 배석판사들을 대신해서 내가 웃으면서 화를 냈어야 한다. "아 부장님, 이렇게 노하시기 있길 없길? 부장님이 이렇게 변호사들에게 접대받고 다니는 걸 배석판사들이 감찰에 제보하면 당장 징계 드실 것 같은데, 배석판사들에게 자알 하셔야지 노하시고 그러니까" 나는 항상 이렇게 마음속으로만 대사를 친다.

그런데 나는 올 한해 현명하게 화를 내고 싶다. 본인이 편견에 사로잡힌 것도 모르고, 도리와 염치도 모르는 바보들에게 우아하게 웃으며 화낼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나의 올해 목표이다

바깥에서 보기엔 검사는 다 같은 검사인가 보다 하지만, 사실 검찰 내부에서 보면 빛과 그늘이 그만큼 극명한 곳도 없다. 그 이야길 일단 시작해보자면,

흡수자 검사의 경우

검사임관을 위한 면접을 볼 때였다. 면접을 담당한 검사가 나의 연수원 동기에게 "자네는 왜 그 대학에 들어갔나"라고 물었다. 나의 동기는 붉어진 얼굴에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생계를 힘들게 꾸리시는데 생활비까지 4년 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는 대학교는 그 곳 밖에 없었다라는 대답을 했고, "이런 지잡대 출신이 우리 검찰에 들어오려 하다니 쫓쫓"하는 면접관의 표정은 그래도 크게 누그러지지 않았다.

이런 분들이니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고졸임이 널리 알려진 대통령에게 몇 학번이냐고 묻는 질문을 할 수 있겠나 보다 한다. 그리고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하여는 수시로 피의사실까지 흘러가며 모멸적인 수사를 했지만, 이른바 절친으로부터 선물로 받아 그를 단번에 120억원 대의 부자로 만들어준 진경준의 주식에 대하여는 그들은 "부자친구를 둔 게 뭐가 잘못이나 부럽기만 하다"고 말했다. 그들은 이렇게 지독한 "차별의 화신"이다.

금수저 검사의 경우

어느 검사는 어떤 금융지주회사 회장님의 따님이였다. 그냥 검사라는 직함만 사랑했던 건지, 무단결근에, 무단조퇴에 근태가 엉망이었지만 징계를 받지 않고 넘어갔다. 이를 무단 결근을 했을 때에는 그 아버지와 함께 와서 그 아버지가 여식을 잘못 키워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런데 그 검사가 결국 사고를 쳤다. 접수된 고소장을 잃어버렸는데, 이걸 또 자기 혼자 수습한다고 고소장을 위조해서 그 위조한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두고 "각하"처분을 했다. 그 검사가 징계처분을 받으면 변호사개업에 차질이 있으므로 검찰에서는 이마저도 위조범죄 사실은 무마하고(당시 언론보도를 보면 해당 검찰청 관계자가 위조한 고소장이 분실한 고소장과 내용이 대동소이해서 위조죄가 아니더라고 어설픈 변명해준다) 고소장 분실만을 주로 문제삼아 징계를 하지 않고 사표수리로 마무리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회장으로 있는 회사가 로펌에 가져다주는 돈이 적어도 수십억은 될 거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로펌에 들어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렸지만, 이는 결국 좌절되었다. 그 고소인이 위조죄로 고소를 했고, 많은 흡수저 검사들은 개똥도 쓸 데가 있다더니 악성 민원인도 쓸 데가 있다면서 고마워했다.

어느 전직 검사장의 아드님인 검사는 업무처리속도가 상당히 느렸다. 형사부 검사는 경찰로부터 송치된 사건을 한달에 300건 이상을 처리하는데, 저렇게 일하면 일반적인 사건처리 기간으로 삼는 3개월을 넘겨 "3개월 미제"를 만들게 되고, 이 3개월 미제가 얼마나 많은지는 검사의 업무능력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통계에 몸이 달은 부장검사로부터 미제를 줄이라는 쪼임을 당하게 되는 건 물론이다. 근데 이 검사장의 아드님 심기를 걱정한 어느 검찰청에서는 3개월 미제를 개별검사를 기준으로 통계를 잡지 않고 부별로 하는 것으로 바꿨다. 그리고 그 해당 형사부의 부장검사는 통계를 잘 내려고 다른 검사들은 마구 쪼았지만 그 전직 검사장의 아드님은 건드리지 않았다. 대통령을 모욕하고, 면접을 보러온 연수생을 그렇게 욕보

였던 그들은 이렇게 전직 검사장의 아드님의 유약한 멘탈까지 챙길 정도로 참 세심하였다. 나중에 그 검사를 모셨던(?) 부장검사가 영전했을 때 그 전직 검사장의 아드님을 잘 모셔서 그런 거라고 농담처럼 말해졌다.

내가 연수원을 다니던 때에는 뚜마담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다녔다. 이 뚜마담의 수첩에는 미혼 남자연수원생 리스트가 있고 그 전화번호와 함께 학벌, 집안, 사법시험성적 등등 5개 항목에 각 항목 20만점으로 사람의 점수가 매겨져 있다는 게 정설이었다. 이 뚜마담들은 남자연수생들에게 데이트비용을 쥐가며 혼기에 이른 여성들을 소개시켜줬는데, 전직 검사장의 따님들을 소개시켜 줄 시에는 "검사가 되면 원하는 자리에 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게 옵션이었다.

부장검사가 그 전직 검사장의 아드님을 그렇게 챙기고, 또 전직 검사장이 사위의 인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는 검찰에 있을 때 형성해 놓은 "라인" 때문이다. 이 커넥션은 현직에 있을 때는 대검찰청, 법무부, 검찰청의 특수부, 금융조사부 등의 인지부서의 자리에 서로 끌어당기고 끌어주고 또 비위행위가 있더라도 징계를 받지 않도록 비호해주고, 또 옷벗고 나와 전관변호사가 되면 사건을 봐주는 그런 관계가 된다. 부장검사 본인이 반드시 해당 라인에 속해있는 경우만 먹히는

것은 아니다. 인사권을 가진 그 막강한 라인에 어필해야 하고, 또 전직 검사장이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등으로 살아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홀대할 수 없게 된다. 이걸 두고 검사들은 "꺼진 불도 다시 보자"고 말한다. .

사실 이런 금수저들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가 많이 부여되고 또 치명적인 실수를 하더라도 잘 수습이 될 수도 있다.

나의 후배 중에는 시험만 잘보는 아이가 있었다. 무슨 정신이었던지 사법시험 2차 시험 첫날에 버릇처럼 학교 도서관에 공부를 하러 왔다. 뒤늦게 깨닫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는데(그 후배의 아버지는 판사를 하시다가 대형로펌의 변호사를 하시던 분이셨다) 그 아버지는 "내가 수험표를 들고 시험장에 바로 갈테니 너는 아빠가 보내준 차를 타고 수험장에 오면 된다"고 했다. 그 아버지가 동원한 차는 인근 경찰서의 순찰차였고, 내 후배는 무사히 시간 내에 수험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사실 위의 이야기들은 검찰에만 해당하는 것도 아닐거다. 인적 관계를 이용한 청탁이 먹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니 어디나 그렇지 않은가. 내가 느끼기에는(아래 제시된 내용에 대한 통계 같은 건 없다는 이야기이다) 그간 우리 사회는 너무나 악화되어 왔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이야기를 듣자면, 어느 대형 로펌은 고위관료들의 자식들만 뽑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한다. 이들도 처음에는 그 로펌의 리쿠르트 담당자가 사람보는 눈이 없다가 했는데 3년쯤 지나니 그 뚜렷한 경향성이 관찰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어느 로펌에는 전문경영인이 "우리 회사가 월 얼마의 정액 고문계약을 체결해 줄테니 자식을 채용해달라"는 청탁이 다수 들어온다고 한다. 결국 그 자식의 월급을 아버지가 월급사장으로 일하는 회사가 지급해주는 꼴이 된다.

우병우의 당부

검찰이 검사들 교육을 위하여 만든 비디오가 있다. 수사능력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몇몇 검사들을 인터뷰해서 그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한 목적인데, 흠수저 검사들도 수사를 잘하면 화려한 나비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 되겠다.

그런데 그 비디오의 등장인물 중 한 사람은 우병우이고, 우병우는 임관 3년차에 경주지청에서 겪었던 사건, 즉 지역토호가 운영하던 건설회사의 비리를 건드렸다가 권력에 밉보여 인사철도 아닌 시즌에 전보조치되어 물먹은 이야기를 하면서 검사들에게 항상 조심할 것을 당부한다. 검사들을 위한 교육자료에서 "힘있는 자에게는 납작 엎드려라 살아있는 권력을 건드려서 동티나게 하지 말아라"를 당당하게 가르치는 패기 있는 검찰 되시겠다.

전관 변호사의 영업의 비밀

홍만표는 검사 사직 후 변호사로 활동한 1년6개월 동안 110억을 벌었다고 알려져 있다. 물론 탈세한 돈까지 포함하면 위 금액을 훨씬 더 상회할 것이라고 추측해본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직접 몸소 겪어보고 이 글을 썼더라면 더 신뢰감있고 생생하겠지만, 그런 일은 절대 가능하지 않을테고, 어쨌든 내가 아는 한,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전관예우를 누리면서 돈을 갈퀴로 쓸어담기 위해서는 첫 사건, 검찰 내 커넥션, 그리고 브로커가 매우 중요하다.

첫 사건의 중요성

브로커는 이제 막 개업한 검찰 출신 변호사에게 절대 안 될 것 같은 사건을 골라온다. 절대 구속을 피하기 어렵고, 변호사 아니라 변호사할 애비가 온대도 입건을 면하고 내사종결로 마무리되는 것은 절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 말이다. 이 첫 사건이 잘 풀리면 용한 전관으로 입소문이 나서 온갖 사건들이 마치 파리나 모기가 끈끈이테일에 달라붙듯이 몰려들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사건이 왕창 몰려들면 그 중에서 될 만한 사건들만 가려받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승률높은 변호사로서의 명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그런 고로 어느 검사에게 "OOO 검사장님 첫 사건이라는데"라고 부장검사나 차장검사가 전해준다면 이건 어떻게 해서든 봐줘야 한다는 뜻이 된다. 그래서 사건은 마법을 부려 마약제조죄가 마약판매죄로 둔갑을 하고, 뺑소니가 단순교통사고로 의율된다.

유령회사를 세워 거액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을 때의 일이다. 주임검사는 주범 3명을 모두 구속하려 했으나, 차장검사는 주임검사에게 구결도 하고 압력도 넣어서 3명 중 2명만 구속시키되 구속시킬 두 명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에게 고르게 하자고 했다. 결국 그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바지사장 둘만 구속시키고, 진짜 주범 1인은 구속을 면하게 하는데 성공했다.

커넥션의 중요성

검찰에 있을 때 친목질을 열심히 하고 커넥션을 닦아 두어야만 전관변호사로서 잘 나갈 수 있다.

검사 시절에 은혜를 베풀고 신세를 지게 하여 그걸 퇴직 후에 회수하는 것인데, 은혜를 베푸는 일이란 인사에서 끌어주고 징계받을 사안을 무마시켜주고 혹은 수사관련 청탁을 들어주거나 하는 것들이 될 수 있다.

아주 드문 예일 것이나, 전관예우의 재미를 전혀 못 본 검사장도 있다. 자신이 영원히 검사를 할 줄 알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자세로 아래 사람들에게 무지막지 폐악질을 일삼다가 갑자기 퇴직을 당하신 분이다. 재직시절 하도 인심을 잃었던 터라 그 변호사가 검찰청에 개업인사

를 하기 위해 찾아갔을 때, 이를 전하는 직원에게 부장검사가 복도에 대기 중인 그 변호사에게 다 들리도록 “내가 그 따위 인간을 왜 만나나”라고 했다고 한다. 그 검사장 출신 변호사에게 말한 사건들도 실제로 잘 풀리지 않았고 이래저래 소문이 다 퍼져 따끈따끈한 전관변호사였지만 사건이 몰려들지 않았다 한다.

브로커의 중요성

브로커를 고용해서 대가를 주고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변호사법위반이지만, 실제로 브로커는 쓰지 않는 전관변호사는 거의 없지 않을까 한다. 발뺌은 브로커는 전관에 대하여 여기 저기 소문을 팔고 다니면서 화려한 언변으로 사건을 끌어오는데, 실제로 이 브로커들은 수임료의 일정 퍼센티지를 보수로 가져가는 고로 수임료가 높을수록 자신이 가져가는 몫이 커지기 때문에 안 그래도 비싼 전관수임료를 더욱 높게 된다. 또한 중간에서 수임료를 횡령하는 일도 제법 있는데, 탈세나 뇌물공여 등 전관변호사의 비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는 당하고도 고소조차 못한 채 속궂이는 경우도 있다.

전관변호사의 전화 한 통의 값

나의 어느 지인은 십여년 전 오빠가 삼성의 어느 계열사 연구원으로 있던 중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나와서 이용한 혐의로 온 집안이 고생을 했다. 그 연구원은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 회사에 의하여 채택되지 않자 실망한 나머지를 이를 가지고 나와 창업을 했는데, 회사가 영업비밀 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하여 구속되게 된다.

어느 법무법인을 선임해서 보석신청을 밀어 넣어 놓고도 온 집안 식구들이 단박에 석방시켜 줄 능력있는 변호사를 찾아 서초동 일대를 분주하게 다녔는데, 그 어머니가 언변이 유려한 어느 브로커에게 딱 걸려두고 만다. 그 브로커는 “개업한지 6개월도 안 된 검사 출신의 전관변호사인데, 보석사건의 착수금으로 오천만원 석방에 성공하면 오천만원에 그 연구원이 창업한 회사의 주식 50%를 달라”고 요구했다. 어머니는 돈이야 자신이 마련하면 되지만, 회사 주식은 아들이 결정할 사항이니 안 된다고 했다.

즉석해서 브로커와 구두계약을 하고 입금까지 마쳤는데, 한 시간도 안 되어서 이미 선임되어 있던 법무법인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와서 “방금 전 판사에게 연락을 했는데 이런 저런 사정을 고려해서 보석을 허가해주겠다고 한다”고 알려줬다. 가족들은 가만히 뒤도 이미 선임되어 있던 변호사의 노력으로 석방될 사건이었었는데, 공연히 돈 5천만원을 버렸다고 후회했다. 가족들은 전관변호사와는 상담조차 못한 채 브로커에게 꼬여 계약을 했는데, 그 브로커가 오전에 입금하면 오후에 변호사와 상담을 잡겠다고 알려줬고 선임신고서조차 써 준 일이 없어 그 한 시간 동안 변호사가 변호활동을 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가족들은 착수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변호사는 오히려 자신이 판사에게 전화 한통을 넣어서 석방이 된 것이라면서 성공보수도 달라고 요구했고, 겨우 타협을 보아 성공보수는 안 주는 걸로 정리가 되었다. 그 전관변호사가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 전화 한 통의 값은 오천만원이다.

우리 엄마가 생각하는 딸의 몸값이란

우리 엄마가 나에게 자신의 친구 오빠가 임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인데 횡령죄로 구속이 되었는데 보석신청을 했다고, 내 연수원동기가 그 지원의 판사로 있으니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안 해. 사건의 내용이라도 잘 알면 보석 허가 여부를 고려할 때 이리저리한 점을 주의 깊게 봐달라던가는 말은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뭐 격떨어지게 난데없이 잘 봐달라고 해? 그리고 요즘 그런 청탁 통하지도 않아”라고 했다. 거절해도 계속 나를 드글드글 못살게 굴 것 같아서 결국은 연락을 했다고 엄마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런데 나중에 보석이 허가되었고, 그 엄마의 친구는 고맙다면서 사례금을 들고 왔는데, 그게 이천만원이었다. 우리 엄마는 받지 않고 전부 돌려줬다.

그 전관변호사는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 전화 한 통의 값에 오천만원을 받고 성공보수까지 받으려 했지만, 우리 엄마는 딸이 연락을 했다고 믿었지만 이천만원의 돈을 받지 못하셨다. 우리 엄마조차도 딸의 몸값을 알아주지 않으니 내가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은 애당초 틀려먹은 일 같다.

훌륭한 법조인이 되는 것은 참 쉽죠잉

얼마 전 친구인 한 검사와 얘기를 나눴는데, 그 친구는 “우리 사회에서 훌륭한 법조인이 되는 것은 참 쉽다. 그냥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것 뿐인데,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칭송을 해서 당황할 때가 많다”고 했다. 그렇다.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법조 전반이 불공정하고 심지어 불법적인 행태를 관행이란 이름으로 행해오던 가운데, 법조인들이 이제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되게만 행동해도 훌륭한 법조인으로 칭해지게 되었는데 싶다.

법원 블랙리스트 사건과 김수환 추기경의 기억

사랑하세요... 할 수 있을까?

사법연수원 2년을 참 설렁설렁 대충 지냈지만, 유독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하신 특강은 기억이 생생하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실제로 평등하지 않습니다. 지위의 고저, 신체적이거나 지적인 능력, 재산 다 차이가 있죠. 그건 현실로 동등하던 것이 아니라 법이 사람을 평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당위를 선언한 거라고 봅니다. 타인을 평등하게 대우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대한 보편적인 사랑을 지녀야 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된다거나, 같은 학교, 지역 출신이라고 해서 친절하게 대하고 잘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나와 같은 인간이므로 사랑하는 것 말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디 사랑하세요. 저도 사랑이 머리에서 심장으로 내려오는데 칠십 년이 걸렸습니다”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깊은 뜻을 그 때 온전히 새겼던 것은 절대 아니다. 그냥 인증이 긴 추기경님의 인자한 모습과 말씀이 마치 심장에서부터 울려나오는 듯한 진실됨에 끌렸다.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지만, 사실 그 때 내 상태는 무척 좋지 않았다. 개울물에서 발이나 찰랑거린 주체에 바다를 안다고 믿었던 오만한 시절이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긴장과 불안에 시달렸는데, 합격 후에는 마치 고무줄

이 오랫동안 팽팽하게 당겨져 있으면 탄성을 잃고 늘어나버리는 것처럼 이완되어 있었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밖에 없었다. 그런 상태였음에도 그 말씀들이 기억에 새겨진 건 참 신기하다.

추기경님께서서는 또 “법이 따뜻한 피가 흐르고 감정이 있는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그것을 잊고 법을 다루는 사람이 오만해지면, 법은 사람을 박해하는 수단이 되고 법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생겨납니다. 억울한 사람이 많아지면 사회가 병듭니다”라고 하셨다. 그 자리에는 나와 마찬가지로 당시 연수생이던 임은정 검사와 국정원 댓글사건 증거를 인멸하고 위증교사를 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이재영 검사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 거점법관으로 소문이 돌고 있는 법관들 가운데 한 사람도 아마 결석을 하지 않았다면 있었을 것이다.

어떤 법조인들이 이기는 방식

인생을 이기거나 지는 게임 혹은 원하는 것을 쟁취하거나 쟁취하지 못하거나 하는 투쟁의 장으로 이해하고 거기서 자신은 어떤 수단을 써서든 승리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대학교 1학년 때 인류학개론이라는 교양과목을 들었는데, 하루는 교재를 읽고 강의에 들어갔다. 나의 옆자리에 앉았던 같은 학번의 과 동기에게 교재를 같이 보자고 부탁했는데, 과 동기는 오히려 나와 자신 사이에 펼쳐둔 교재를 내가 볼 수 없는 자신의 오른쪽으로 확 옮겼다. 나는 저러서 서울깡쟁이라고 하나 보다 했지만, 그 몰인정은 참 서운했다. 그런데 그 과목의 학기말 시험을 볼 때 나의 뒤쪽에 앉아 있던 그 아이는 내 등을 손가락으로 톡톡 치더니 한 문제의 답안을 보여달라고 속삭였다. 그 아이는 지금 법관인데, 진심 대학생 때의 모습과는 달라졌기를 바란다.

판사는 일정한 연차에 이르면 해외연수를 보내주는데, 미국이 가장 선호되는 지역이다 보니 경쟁이 심하고 영어성적을 꽤 잘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어느 배석판사는 법정에서 몰래 이어폰을 끼고 영어공부를 했다. 법정에서 재판행은 어차피 부장판사가 하는 것이고, 자신이 주심이 아닌 사건은 관여할 필요도 없으며, 자신이 주심인 사건마저 나중에 기록을 보고 파악하면 된다고 여긴 듯 하다. 이 판사는 결국 그 해 해외연수를 신청한 법관 가운데 영어성적 1등을 기록했다.

인생을 이기거나 지는 게임으로 생각하는 그들은, 하나의 목표를 쟁취하면 다음으로 옮겨가기가 싫다. 진경준은 검사가 된 다음에는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듯 하다. 그는 검사 3년차에 부임한(임관한 때부터 2번째의 임지가 되기 때문에 통상 검찰 내부에선 “2학년”이라고 부른다) 부산지검에서 업무시간 중에 주식투자에 골몰하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유독 그 검사실에서 인터넷 사용량이 많아 확인하는 중에 밝혀진 것이라고 들었다.

자신의 성취에 도취된 오만한 법조인

위의 유형의 사람들은 대개 자기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는 비굴하고 덜 가진 사람들은 멸시하며, 그래서 차별적이며 사람에 대한 박애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다.

법원장 출신으로 박근혜 정권 때 고위직에 발탁된 어느 분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있던 시절 그 재판부에 들어간 적이 있다. 내 의뢰인은 목장을 운영하던 분이셨는데, 그 형수와의 사이에 재산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긴 거였다. 그 사건에선 내 의뢰인이 형이 생전에 남겨 놓은 빚을 형의 사망사고 보험금으로 어떻게 해결하였고, 애초 보험사가 고의사고를 의심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는데 어떻게 민원을 넣어 지급을 받을 수 있었던가 하는 점들이 다루어졌다.

그런데 그 부장판사가 “아니 소나 키우는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무를 보고 다니나”라고 말했다. 그 순간 나의 머릿 속에는 오만가지 복잡한 생각이 오갔다. ‘건강하게 소를 키워 좋은 우유를 생산해 내는 일도 사회에 필요하고 가치있는 일입니다. 공동체의 법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모욕할 권한까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 설마 감치까지는 못 시키겠지, 아니지 감치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말했다간 100% 패소야, 내가 울컥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한다고 의뢰인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니잖아 등등. 결국 마음의 소리로만 크게 “당신은앞으로 우유도 마시지 말고 소고기도 쳐먹지 말어”라고 외쳐주었다.

국민의 걱정거리가 된 법원

김 추기경님께서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오만해지면 사회가 병듭니다”라고 하셨는데, 실제 그러했다. 법조인들은 사회를 병들게 만들었고, 지금은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이 법원을 걱정하고 있다.

국민들은 법원 블랙리스트에 관해서 법원의 높으신 분들이 진실을 감추려 하고 속이려 시도하는 것을 다 지켜왔다. 법원행정처에 발령받은 한 법관의 블랙리스트 파일 존재에 관한 의혹제기와 사직서 제출, 다른 법관의 조사촉구를 위한 단식, 또 다른 법관의 다음 아고라를 통한 국민서명 운동이 있었는데, 그 일련의 과정 중에 국제인권법연구회 사건을 조사하던 이인복 전 대법관은 블랙리스트 존재 가능성은 없다고 발표했고, 김소영 대법관은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발언에서, 해당 판사가 통상하는 금식기도하면서 단식의 의미를 축소했다. 또한 법원행정처는 일부 컴퓨터에 대해선 조사협조를 거부했고 파일이 이미 삭제된 흔적도 발견되었다.

형사사건 판결문에서 흔히 쓰는, 범행을 순수히 자백하므로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는 표현이나 검사들의 기소유예 결정문에서 쓰는 장래를 엄히 훈계한다는 표현을 떠올리고 갑자기 실소가 나왔다. 국민들이 이제 판사들을 두고, 행위를 부인하므로 개전의 정이 없다고 하거나 또는 장래를 엄히 훈계하여야 하나 하는 실없는 생각이 떠올라서. 나의 바램은, 아 쯤, 촛불을 들어 병들어 죽어가는 대한민국을 기사회생시킨 기적을 일으킨, 그 어려운 것을 해낸 국민들에게 이제 더 이상 걱정 좀 끼치지 말고 잘하자 쯤.

여성검사의 적은 여성검사?

2012년경에 연세대의 황상민 교수가 박근혜를 두고 “생식기만 여성”이라고 칭했다. 대부분의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배제를 겪고, 또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위협에 처해도 보고 그래서 그러한 경험은 여성으로 하여금 사회적 약자에 공감하거나 약자와의 연대에 나서는 정서적 동기가 될 수 있는데, 박근혜의 성장경험상 일반적 여성과 다르다는 의미로 하신 말이 아닌가 한다. 하지만 그 때는 감히 그 단

어를 쓸 수 있느냐, 여성비하다 라는 것만 문제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기수가 높은 여성검사들이 검찰 내부에서 후배여성검사들의 인권보호에 그간 얼마나 역할을 하였는지를 말하고 싶어서다. 검찰에 오랫동안 있으면 여성검사도 자신의 생물학적 성을 초월하여 남성의 시각에 동화되거나 심지어 마초화되는 경우가 있다. 검찰의 남성중심적 문화에 오래 노출되어 길들여진 탓인가 싶다. 또 검찰은 이제까지 검찰 내 문제를 고쳐서 공정하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퐁퐁 감추어서 공정하고 깨끗한 척 해왔는데, 이러한 조직의 돌아가는 방식도 완전히 체화된다.

지금은 변호사 개업을 하신 어떤 여성검사는 성희롱피해를 호소하는 후배여성검사에게 “어떻게 네 말만 듣고 알겠어. 저쪽말도 들어봐야지”라고 했다. 서지현 검사 사례에서 볼 수있듯이 가해자가 간부일 경우 대개 감찰도 개시되지 않고 무마되어 버리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힘을 보태주어야만 감찰이 겨우 개시될 수 있다. 그런 말 한마디가 피해검사를 위축되게 해서 침묵에 이르게 하는 건데, 그 점에 대한 인식이 없다. 그리고 보통의 사람은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지어내서 말하지 못한다. 입을 열어 지나간 일을 복기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수치이나, 그렇다고 참고 있을 수도 없어 용기를 낸 것 아닌가. 피해검사가 그 말을 전한 자리는 반기마다 있는 여성검사 연찬회였고,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선배검사는 그 가해자가 문제적 행동이 처음이 아니라 이전부터 그랬다고 우리가 참았더니 습관을 못고쳤다고 말하며 공개적인 문제제기를 도와주지는 못해도 미안해하기는 했었다. 가해자는 조직적으로 비호되며, 간부들은 피해여성검사를 회유하거나 침묵하라고 압력을 넣기 십상인데, 그나마 여성 중에서 제일 높은 간부에 속하는 검찰선배가 이렇게 말하면"나는 너를 도와주지 않겠다"는 의사표명으로 들리고 그저 숨는 것 밖에는 답이 없게 된다.

그 분은 다른 여검사를 두고 “애 낳으려고 검찰에 들어왔다. 검찰에 들어와서 애낳은 것 밖에 한 게 뭐 있어”라는 망언을 하기도 했다. 또 검찰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에 들어가더니(검찰은 이제까지 자체 개혁을 한다는 명목으로 대검 미래기획단 등 다수의 팀을 운영한 적이 있다) 여검사를 위한 정책으로 내 놓은 아이디어가 “여성검사들에게 제복을 입히자”였다. 아마도 출근복 선택을 위한 고민을 줄여주면 여성검사들이 출근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줄여 시간적 여유를 갖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셨나보다. 여성검사들의 직장생활과 관련한 최대고민이 출근복 선택으로 보이는 이 분에게 무슨 역할을 기대하겠나.

또 다른 여성검사는 술자리에서 후배남자검사에게 “사타구니가 팽팽한 게 힘 잘 쓰겠다”고 말해서 주위검사들을 아연실색케 했다. 아마 상대방이 정색을 한다면 남자 검사들이 흔히 하듯이 “농담인데 그 정도 말도 받아질 여유가 없냐”거나 “지나치게 예민한 것 아니냐”고 하겠지. 전형적인 여성마초로 불리는 다른 여검사는 술자리에서 부장검사와 차장검사로부터 멀리 앉으려고 슬금슬금 피하는 후배들을 그 간부들 옆에 앉으라고 몰고, 간부들의 술잔이 비는 것을 빨리 눈치채지 못한다고 핀잔을 안기면서 술자리 총무역할을 했다. 이런 분들은 술자리에서 여성검사가 경직되어 있으면 분위기를 못 맞춘다고 구박하고, 성희롱을 당하면 너가 헐어서 그런 거라고 비난한다.

성적인 발언을 일삼는 부장을 하소연 하자 "그 사람 예전부터 그랬지.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참았더니..."라면서 미안해하던 여성검사는 9년 후에는 완전히 바뀌었다. 피해여성검사가 SNS에 가해검사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가해검사의 꽃뱀이라는 마타도어에 시달렸다는 글을 올렸는데, 그 가해검사에 대한 명예훼손이고 징계를 행하겠다고 경고를 했다.

검찰총장은 무슨 의도로 내부 진상조사단을 꾸렸을까. 8년간 서지현 검사 문제를 방치해 온 검찰 조직이 문제해결 능력이 있다고 믿는걸까. 모든 여성검사를 상대로 진상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저런 선배들을 보아 온 여성검사들이 신상에 불이익이 없을 것을 신뢰하고 있는 대로 진실을 말할 걸라고 정말 생각하는걸까. 나는 그게 의문이다.

미투아닌 미투같은 미투인 듯.....

한국의 보통 여자들은 성장하는 동안 세상은 넓고 씨글 놈들은 차고 넘친다는 걸 깨닫게 된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길을 물어봐서 차에 가까이 다가갔는데, 벨트를 풀고 아랫도리를 내보인 채였다. 중학생 때에는 정차된 차량의 조수석에서 40대 아저씨가 내리더니 학교까지 태워주겠다고 해서 거절했더니 억지로 손목을 잡아끌었다. 대학교 2학년때는 관악산에서 주취해서 내려온 등산객이 자신은 술이 취해서 위치를 잘 못 설명하겠으니 자신의 마누라에게 데리러 와달라고 전화 좀 해달라고 부탁하길래 순순히 그러겠다고 했더니,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와 동전을 받기 위해 내민 나의 손에 만원짜리 몇장을 쥐어 주면서 같이 자자고 말했다.

그 세 번 모두 초시계로 졌다면 나의 일생의 달리기 기록이 될 만큼 달려 내뺐는데, 아쉬운 것은 세번째는 내 귀를 잠시 더럽힌 데 대한 위자료로 약소하긴 하나 그 돈을 그대로 들고 튀었어야 했다는 거다. 아 그 돈으로 술이라도 처마시면서 욕을 실컷 해줬어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두뇌순발력이 안 좋다.

그런데 검찰에서의 그 3주년을 이야기하자면, 음란한 말과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테이트를 강요한 것뿐인데(본인은 강요라고 생각 안 할 것 같지만) 정말 힘들었다.

위의 일들은 일회적인 사건이고 그 자들이 나의 일상에 계속 영향을 주거나 위협을 끼치진 못하지만, 직장은 그렇지 않다. 가해자는 내가 속한 전 세상인 직장을 지배하는 자이므로 고양이 발톱 아래 놓인 쥐새끼같은 처지였고, 하루 종일이 불안하고 우울했다. 혹시 나를 다시 부르나 싶어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놀라고 퇴근하기 전까지 오돌오돌 떨리고, 복도에서 마주치는 일이 있으면 머리카락이 곤두섰다.

또 다른 어려움은 고립감이다. 술자리에서 입에 발린 궁극의 아부나 하고 행여 흠 잡힐까 뱀보일까 노심초사하는 이들이 나를 위해 나서 주지 않을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고, 그래서 침묵하기에 더 속은 썩어들어갔다. 이 때 나는 누가 "너무 힘들지"라는 한 마디만 해줘도 돈도 빌려주고 심지어 신장 하나도 떼어 줄 수 있을 것 같은 심정이었다.

가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요구를 할 수 없으니 결국 비난과 문제의 해결은 자신에게로 돌아오고, 그러면 지나간 때를 복기하면서 그 때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지금 상황과는 달라졌을까를 끊임없이 생각한다. 업무에 관한 지시에 항상 복종하는 관계이다 보니 업무 이외에 요구나 지

시도 아니오 라고 말하기 어렵고 다시 돌아가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지만. 결국 불안감-고립감-무력감-자책을 두서없이 오가면서 정신이 너털너털해진다. 그렇게 생각많은 밤을 지내고 나면 무거운 몸과 마음으로 지옥과 같은 곳으로 다시 출근을 해야 한다. 매일매일 견딜 수 있는 괴로움의 극한값을 갱신하고, 괴로움이 영글어 몸의 내장 어딘가에 사리가 만들어지는 환각마저 느낄 수 있게 된다.

에이 더러운 새끼들이라고 욕을 해주고 일찌감치 검찰을 떠난 나에 비하면 서지현 검사가 겪은 괴로움은 상상이 안 된다. 이견 동물의 왕국 에다 막장 환타지를 결합한 지옥도다. 상가에서 추행을 하는데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검찰 간부들이 아무도 제지하지 않는다. 나는 검사로서 다른 성추행범은 불러서 조사를 하고 공소제기를 하는데, 나를 가해한 그 성추행범은 법무부의 좋은 보직만 찾아다니며 3년 후엔 심지어 인 권국장을 지낸다. 그리고 그 성추행범에 대한 내부감찰을 막은 자는 국회의원이 되어 내가 집행할 법률을 만든다.

그러나 나는 실은 검찰 내부 진상조사단에 대해 1의 기대도 가지고 있지 않다. 안태근(그러나 면직처분취소소송을 하고 있어 승소를 하면 돌아올지 모른다)과 최교일은 검찰을 떠났지만, 그 때 감찰을 담당하던 검사들과 서지현 검사의 지위라인에 있으면서 서 검사를 방치하고 침묵하도록 종용한 이들은 여전히 검찰 내 고위간부일테고 그들을 변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게 뻔하다. 최교일이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쭉시냐"라고 했던 말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침묵하므로 감찰을 개시할 수 없었다"고 결론지으면서. 근데 그 피해자의 침묵은 누가 만들어내었나? 너무 잘나가는 검사라서 문제제기하면 네가 더 다친다고 종용한 바로 그들이 만든 건데.

나는 지금, 그들이 만들어온 무법천지에 아주 선명하고 진한 금을 긋고 금을 넘어오면 다 잘라버리는 그런 꿈을 꾸고 있다.

고장난 영점

재판은 왜 실패하는가... 이견 내가 머리 속에서 그저 상상해보기만한 프로젝트의 이름이다.

모든 재판이 반드시 올바르고 공정한 것은 아니다. 시민들은 가끔 미디어에 보도된 몇몇 사건을 보고 그렇게 느끼지만, 직접 재판에 참석하여 수행하는 변호사들은 더 크게 절감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들은 대개 변호사들끼리의 술자리에서 뒷담화로 소비되거나 기껏해야 연말에 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하는 법관평가에서 문서 한장에 울분을 토해내는 것으로 끝내고 만다.

의사들이 각자의 실패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꺼려한다던데, 잘 모르긴 해도 판사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의사들이란 공부라면 다 한가 닥씩 하던 사람들에다가 집에서는 잘난 자식, 학교에서는 모범생으로 불려 자신에게는 오류가 없다는 "God Complex"를 가진 이들이 꽤 많고,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관련된 일이다 보니 자신의 실패를 솔직히 털어놓기를 매우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의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떤 의사분은 자신의 실패담을 털어놓았다가 불편해진 다른 이들이 슬금슬금 도망가더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다. 실패담이 공유되면 의료지식과 경각심의 제고를 위해서 무척 유익한 일이겠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였다.

위 프로젝트는, 법조인들을 상대로 공정하지 않았거나 부적정한 재판사례에 대한 앙케이트를 하여 수집한 사례 중 중대하고 유의미한 사례에 관하여는 심층면접을 한 다음 재판의 실패원인을 분석하자는 내용의 기획이다. 제목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에서 따왔다.

그러나 머리 속의 설익은 아이디어였을 뿐 진지하게 숙고한 것은 전혀 없다. 일단 우리 변호사의 일이란 게 선임급 후업무인데, 누가 연구 좀 해주세요라고 돈을 들고 올 일도 없고, 말은 소송 사건도 잘 못 이기는 찌리 주제에 저런 책을 써봤자 라는 자격지심도 들어서 결국 니가 진행하는 사건들이나 좀 실패하지 말아라는 생각으로 귀결되고 만다.

근데 만약 "재판은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을 쓴다면 "고장난 영점"이라는 이름의 장에 꼭 넣고 싶은 에피소드가 있다.

그 에피소드 속의 판사님은 내게는 엄청 도움이 되었지만. 음 공익적 관점에서는 좀 성찰을 많이 하셔야 하는 분이다.

이혼사건이었는데, 부인이 제기한 본소 이혼청구와 남편이 제기한 반소가 결합되어 있었다. 기일에서 부인은 남편이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어 통화내역 조회신청을 하겠다고 했다. 피고인 남편은 실제 바람을 피고 있었고 주말부부로 지내면서 부정을 저지르는 상대방과의 사이에 주중의 아침과 밤에 집중된 통화내역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통화내역 조회를 하겠다는 원고의 말에 올 것이 왔구나 하고 거의 체념 상태가 되었다. 그런데 판사가 "통화내역 조회를 해서 부정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 피고가 주장하는 이혼사유인 의처증이 입증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 한 마디가 그를 살려주었다.

판사의 말은 물론 이치에 전혀 맞지 않다.

첫째 통화내역조회를 해서 다른 여성과의 다수 통화내역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견 그냥 부정의 증거를 못찾은 것일 뿐이지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피고가 치밀해서 부정의 상대방과 대포폰으로 연락을 했을 수도 있고, 추적이 안 되는 모바일 메시지로 연락을 했을 수도 있지 않다. 그렇게 된다면 다른 방법을 시도하여 부정의 증거를 찾을 수도 있다. 신용카드 이용내역 조회를 해보면 숙박업소 이용 내역이나 비싼 여성용 선물을 한 것 등등이 발견될 수도 있고.

둘째는 설령 남편이 정말로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있다고 해도 배우자에 대해 단순한 의심을 품는 것 정도가 의처증은 아닐 것이다. 의처증은 망상과 피해의식, 집착과 불안이 병적일 정도여야 하고 그러한 심리상태는 피고가 입증해야 하니깐.

그런데 원고는 "통화내역 조회를 해서 부정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 피고가 주장하는 이혼사유인 의처증이 입증되는 것 아니냐"라는 판사의 말 한 마디에 위축되어 통화내역 조회를 포기했다. 원고 변호사가 판사의 위 언급을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해서는 아닐테고, 통화내역 조회를 통해 부정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판사가 실제로 그렇게 판결을 할 테고 그래서 자신의 의뢰인에게 잠재적으로 불이익한 증거신청은 하지 않는 쪽으로 안전하게 가자고 마음을 먹으신 것 아닌가 싶다.

이렇게 해서 그 남편은 부인에게 주어야 할 위자료 4-5천만원을 아낄 수 있었다. 그런데 그 판사님은 왜 그러셨을까. 일부다처제를 인정한다는 물론교도일까. 남자가 뭐 바람을 필 수도 있지 이렇게 여기서는 걸까. 아니면 그 남편이 바람 따위는 일절 피지 않게 신뢰감을 주게 생겨서였을까. 결국 그 판사는 제출된 증거 하에서 잘못된 판결을 한 것은 아니지만, 편견에 찬 말 한마디로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였다.

내 폐복을 볼 것 같지도 않고 이름을 밝힐 수도 없는 그 판사님은 그 때 자신의 마음의 바늘이 저울의 영점을 아주 크게 벗어나 있었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실 것 같다.

부장검사들은 왜 흑화되는가

높은 자리에 있다 함은,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하고 그래서 무거운 책임을 걸머져야 함을 일컫겠으나, 이진 순전히 이상화된 언급이고, 한국사회에서 살아 온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 이들에 대해 실제 느껴온 주요특징은 아래의 세가지이다.

1. 남이 차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차에 타거나 내릴 수가 없다.
2. 더 이상 타인에게 친절하지 않아도 된다.
3. 아무리 뺨은 소리를 해도 듣는 사람들이 고개를 주억거리려 준다.

검찰에서 간부로서 첫번째로 오르는 자리가 부장인데, 형사부 부장은 수사는 담당 안 하고 주로 부원인 검사들이 처리한 사건을 결재하는 일만 하다보니 시간이 남아도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자신에게 인사평정을 내려주는 이가 부장검사이다 보니 부원들은 부당한 처사도 참고 견디게 된다. 또한 평검사를 벗어나 이제 부원을 거느린 부장검사가 되어 처음 하는 골목대장놀이이다 보니 자신이 가진 힘과 지위를 마구 누리려는 경향이 있다.

부장검사들이 주로 몰두하는 일은 업무보다는, 자신의 인사운동, 인사운동이 안 먹혀 검찰 내에서 옷을 벗어야 할 경우를 대비한 친목질, 성추행 등을 비롯한 부원 괴롭히기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

역대급 업무지시

어느 검사는 채혈검사를 통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05 미만으로 나온 피의자에 대하여 무혐의로 처분한 사건을 결재올렸다. 그런데 부장검사가 해당 사건을 반려하였고, 주임검사는 반려된 기록을 보고 기함했다. 그 이유는 기록표지에 붙인 포스트잇에 "병원을 급습할 것"이라는 부장의 지시가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호흡측정의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었었는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해서 채혈검사에 들어갔고 그 결과 기준을 하회하므로 무혐의로 처분할 수 밖에 없는 사건이었다(잘 아시다시피 채혈검사는 호흡측정보다 정확도가 높다). 그런데 이 부장검사는 피의자와 담당병원이 모의를 해서 혈액을 바꾸거나 결과를 조작했다는 드라마를 쓰셨는지 어쨌는지 그런 지시를 내린 거였다. 그 부장은 평소에도 워낙 본인의 뇌내 망상 드라마에 의한 업무지시를 많이 내리는 걸로 유명한 분이라 그 주임검사는 부장검사를 찾아가 의도를 묻거나 하지 않고 그 사건을 그냥 그대로 캐비넷에 처박아 두었다. 지극히 간단한 음주운전 사건을 3개월 미제로 썩힌 다음 부장이 바뀌고서야 무혐의로 겨우 처리할 수 있었다.

어느 부장님의 화려한 nightlife

이 부장님은 검찰 내 인사를 포기하신 분이었고, 본인의 nightlife에 거의 모든 관심이 쏠려있었다. 우리에게 점심시간이나 회식자리에서 들려주는 일화들도 모두 그러한 종류의 이야기였다. 그 부장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삼으라고 들려주신 이야기 중 하나다.

본인이 지방의 어느 검찰청에 부장으로 가 있었던 중 어느 술집의 마담이 너무 맘에 들어 "한번만 달라"(부적절하지만 부장의 표현을 그대로 쓴다) 졸라댔다고 한다. 그러자 그 마담은 자기 술집에 손님을 열번 데려오면 한번 주겠다고 한다. 그 부장을 접대하려고 하는 지역토호가 넘쳐나고 본인도 이미 스폰서의 신용카드를 들고 있는지라 그 술집을 10번 이용하는 건 아주 쉬운 일이었다.

그래서 결국 그 날이 왔고 부장은 그 마담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관사에 도착했지만, 이거 웬걸 관사에 전등이 이미 밝혀져 있는 거다. 그 부장은 "야야 큰일났다. 오늘 장모님이 나 보러 온다고 한 날인데, 내가 정신이 없어 깜박했네"라고 말했다. 저층아파트였고 아파트의 베란다로 환하게 내다보이는 노상주차장이 있는 곳이어서 장모님이 베란다가 한번 내다보기만 하면 딱 걸릴 태세였다. 그런데 그 마담은 아직 완전히 정지하지도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몸을 던지듯 내렸고, 남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주차된 차량들 사이를 오리걸음을 걷듯이 해서 도망갔다.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부장님은 정말로 진지하게 궁서체로 "고객을 보호하겠다는 그 술집마담의 프로정신을 봐라. 우리 검사들이 그 프로정신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부장님에게서 배우는 단전호흡법

어느 부장은 부원들이 모이는 부회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단전호흡법을 가르쳐주었다. 그 부장은 항상 자신이 정력왕이라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그 비법이 단전호흡법이라면서 절정의 순간에 호흡을 참고 어찌고 하는 지저분한 이야기를 매일같이 했다. 미혼의 여검사가 어느 날 참지 못하고 불편한 이야기 좀 그만 하시라고 제지했지만, 그 부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치너니까 더 잘 알아둬야지"하면서 멈추지를 않았다.

부장님의 어이없는 질책

어느 검사는 부장이 어느 날 전화를 해서 "왜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내게 보고 안 한거야"라면서 불같이 화를 내는 바람에 당황했다. 어느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몇백만원으로 약식기소된 사건이었는데, 경미해서 전혀 중요하다고 할 사건이 못되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부장에게 중요사건이 되는 이유는 그 국회의원에게 연락을 해서 "구속할 사건인데 당신 보좌관을 내가 구속을 안 하고 선처해줬소"라는 생색을 내면서 자신의 인사운동에 이용할 수 있는 인맥을 만들 기회가 되기 때문이었다.

이제 검찰에서 남은 일은 차장검사, 검사장으로 가느냐 마느냐가 되므로 부장검사들은 윗선의 사건청탁을 부원들에 대하여 관철시키면서 인사를 위한 자신의 입지를 닦거나 부원들의 사건을 결재하는 중에 자신들의 인맥을 유지, 발굴하는 데 골몰하게 되는데,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여 난데없이 주임검사를 질책한 것이었다.

다시 김홍영 검사 이야기로

김홍영 검사의 자살의 직접적인 이유는 김대현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행이었다. 그런데 그의 검사 임관 이후 자취를 보면 그가 검찰 내에서 느낀 절망과 부조리함의 무게가 얼마만큼 컸을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 그의 첫 부장은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아 결국 사표를 쓰게 된 그

아이스크림 사건의 주인공이다. 그리고 임관 첫해 같은 검찰청의 한 여검사는 어느 잘 나가는 인지부서의 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 두 사건의 가해자는 모두 형사처벌도 징계도 받지 않았는데, 김홍영 검사는 자신에게 닥친 사건에서도 검찰 내에서 자신이 보호받지 못하고 해결되지 못할 거라는 무력감에 압도되었을 것 같다.

이제 일반인들이 검사를 바라볼때 그 어려운 시험에 합격해서 그 어려운 일을 하시고 라고 볼 것이 아니라, 저렇게 영혼이 천박하고 교양도 품위도 없는 사람이 법을 다루나 하고 혀를 끝끝 차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검찰개혁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내사 잘 모르겠지만, 부장검사들이 시간과 에너지가 넘쳐나서 업무 외의 자신의 사사로운 관심사로 부원들을 괴롭히거나 부원들을 사사로운 술자리에 불러내지 않도록 부장검사들에게도 일폭탄이 내려졌으면 참 좋겠다.

그들만의 검찰 공화국 - 검찰이야기

자판기 검사의 생존법

부장검사 등 검찰간부나 스폰서의 주문대로 무혐의, 기소유예, 구공판, 약식기소 등 그들이 원하는 대로 처분을 내리는 검사를 나의 옛 검찰동료는 자판기 검사라고 칭하였다. 2003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이의제기권이 신설되어 상급자의 업무상의 지시를 다루는 절차가 있음에도 이를 이제까지 행사한 검사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이고, 검찰간부가 관심을 쏟는 주요사건에 관하여 검사들은 거개 자판기 노릇을 한다. 이의제기권이 도입되기 전 상급자의 지시에 불복하려면 직을 걸 수 밖에 없었고, 자신의 뜻과 다른 상부의 지시를 수용했을 경우에는 주임 검사가 공소장이나 불기소처분서에 자신의 입장을 거꾸로 찍는 걸로 소심하게 저항을 표현했다고 한다. 그러면 이의제기권이 도입되고 나서는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용감하고 과감하게 불복을 하냐고 하면 물론 그것도 아니지만.

자판기 검사가 마음놓고 사건을 맡아먹을 수 있는 배경 중의 하나는 검찰의 내부통제 기능 즉 감찰이 무기력하기 때문이다. 감찰이 어차피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므로 감찰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상급자의 지시를 받든 데 불과한 선량한(?) 평검사는 징계하지 아니하고 힘있는 검찰간부는 건드리지 못하는 유구한 전통이 있기 때문에 사건을 어떻게 맡아먹어도 누구도 징계받지 않고 모두 해피한 그들만의 검찰공화국을 유지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징계 프리존에 계시는 검찰간부

2012년 12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있었던 평검사와 부장검사간의 대화이다. 평검사가 어떤 사건에 관하여 무죄라는 의견을 강력히 개진하자, 김 모 부장님은 “검찰은 판단기관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기관이야. 법원보고 판단하라고 해”라고 말씀하신다. 그 부장은 평검사가 개진하는 무죄의견의 옳고 그름을 논하는 대신에, 그냥 우리는 더 높은 권력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게임판의 말에 불과하니 판단을 아예 하지 말라고 하신 거다

이건 원천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배제하는 편리한 마인드가 아닌가 한다. 과거 조작 간첩사건이나 시국사건들에 대입해보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 기소 자체가 결국 타당하였다거나 혹은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이상 어찌란 말이나는 변명이 가능하고, 법원이 혹 무죄를 선고하더라도 자신은 정권의 의지를 전해 준 통로일 뿐 자체적으로 판단한 일이 없고 정권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책임이 없다고 내면적으로 변명할 수 있다.

그 부장은 결국은 그 말 안 듣는 평검사를 해당 사건에서 손떼게 하려고 직무이전지시를 하는데, 그 직무이전지시 자체가 무효여서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부장님은 참으로 무사하셨다. 검찰본부는 그 부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그 평검사에게 지시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징계할 수 없다고 밝힌다. .

그 의미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요건, 범위 및 한계에 대하여 과오로 판단을 잘못된 것일 뿐 자신이 내린 직무상 명령이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하고서 하명한 것은 아니므로 징계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대마를 피워서 잡혀갔을 때 "마약을 하긴 했는데 법률을 잘 몰라서 이게 죄가 되는지는 미처 몰랐어요"라고 변명하면 풀어줄 수 있다는 것과 유사한 이야기가 된다. 이쯤되면 검찰본부나 감찰을 하는 건지, 검찰 간부의 편에서 변명을 지어내주고 해명을 해주는 곳인지 알 수 없다.

제주지검의 압수수색 영장 회수사건도 그러하다.

결재라인의 결재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법원에 접수된 후에야 비로소 변호사로부터 청탁전화를 받은 차장검사가 검찰직원으로 하여금 뒤늦게 회수하여 오게 한 것인데, 회수하러 간 검찰직원은 뭐라 법원에 할 변명이 없어서 "오류가 있어서 시정한 다음 며칠 후에 다시 접수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물론 며칠 후에 재접수되는 그런 일은 없었다.

그런데 그 차장검사의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한 행위는 부인되고, 주임검사와 원활하게 소통하지 않음으로써 외부에 오해와 불신을 야기한 잘못으로만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받으셨다. 타인의 범죄는 예리하게 추궁하시는 검사들이지만, 차장검사님의 변명은 일단 다 믿고 보는 마인드인 것이다. .

그 통조림사건의 검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오래 전 통조림의 보존을 위하여 포르말린을 넣었다는 혐의로 통조림 제조업자들이 구속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천연상태의 원료에서도 포르말린 구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자연 생성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수년전에 WTO에 의하여 이미 나와 있었고 식약청도 이를 지적하였으며, 인위적으로 첨가했다고 보기에는 통조림마다 포름알데히드의 양이 너무나 제각각인데다가, 화학적 합성품으로서의 포르말린의 구입경로 및 보관, 소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통조림에서 검출된 포르말린은 의도적으로 첨가한 포르말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 2심,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선고가 되었지만, 이미 업체들은 부도나고 종업원들은 실직을 하고 업주는 대출로 마련한 집이 헐값에 경매로 넘어가고 가정이 해체되기도 하는 등 심각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나중에 업주들이 무죄확정 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민사사건에서, 검찰이 식품공장에서 압수한 통조림에서 검출된 포르말린의

양이 제각각이어서 도대체 통조림들을 어떻게 추려내어 압수했는지가 이슈가 되었다. 그런데 법정에 나온 통조림 공장의 직원들은 "수사관들이 들이닥치셨는데, 우리 통조림 맛 보시라고 이것저것 골고루 담아서 저희가 상자를 꾸렸습니다"라고 말했다.

자신의 실적과 공명심 때문에, 죄명이 뭔지도 압수수색이 뭔지도 잘 모르고 한번 맛 보시라고 골고루 통조림을 섞어 담았다는 순박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그 검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정연주 전 KBS 사장 업무상 배임죄 사건이나 산케이신문 지국장 명예훼손 사건, MBC 피디수첩 사건 등 지난 시절 무리한 기소를 일삼았던 그 검사들은 그 후 또 어떻게 되었을까. 벌점도 징계도 받지 않고 그들만의 검찰 공화국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

법이 아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검찰

검찰의 검찰부서가 검사에 대한 징계에 항상 무기력한 것은 아니다. 제 목소리를 내거나 윗선에 눈엣가시인 검사들을 표적감찰하여 잘못을 면지털 듯 털고 티끌만한 잘못도 중한 처분을 내려 걸러내는 것은 용맹하게 잘 한다. 현재 검찰의 감찰기능은 미운 검사 숙아내기에는 참으로 특화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압탄 검사의 직무상 범죄나 기타 범죄야 향후 공수처가 설치되면 담당케 할 수 있다 해도 범죄에 이르지 않는 직무상 비리나 부적정한 업무 처리는 검찰이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

15년전의 어느 검사의 분투를 떠올리며

15여년 전에 부장검사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한 어느 여검사는 그 부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기 위해서 투쟁을 해야 했다. 부장검사에 대한 처분에 미온적인 지청장을 압박하기 위하여 그 부장검사에게 저항할 때 생긴 손등의 멍을 내보이며 "제 손등에 멍이 지워지기 전에 저는 부장검사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할 생각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즉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다. 그 검사가 강간치상죄 고소를 감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싸우지 않았다면, 혹은 중도에 포기했다면, 그 강간치상범은 부장검사로 계속 재직했을 것이고 뭐 운이 좋았다면 검사장으로 쭉욱 승진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검찰은 그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검찰 내의 검찰은 썩은 사과를 때깔좋은 사과로 포장하고, 멀쩡하고 싱싱한 사과를 버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눈가리개를 하고 달린 경주마들 그리고 그 파국

내가 대학 신입생 시절 2학년 선배는 "경마장의 경주마는 옆을 돌아다 보지 못하게 눈가리개를 하고 앞만 보고 달리게 하지. 나는 더 이상 그런 경주마가 되기 싫어"라고 말했다. 현재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정치검사들 그리고 여전히 검찰에 남아있는 부역자들은 대학 2학년 생 만큼의 성찰도 없었을 것 같다. 사회적 정치적 맥락 속에서 자신의 행동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마 그저 자신의 코스를 달릴 뿐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이것을 가능하게 한 그들의 내면에 대해 생각해보고 싶어졌다.

모든 열정 중에서 이너서클을 향한 열정이야말로 악하지 않던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무서운 위력을 발휘한다 C. S. 루이스

매년 검찰 간부인사가 발표될 즈음이면 검찰청은 초긴장이 된다. 조그만 실수를 해도 인사에 조바심 나 있는 부장검사에게 크게 혼나게 되기 때문에 인사대상인 아닌 평검사들까지 살얼음판을 걷는 듯 처신해야 한다. 우리 부 부부장은 초임검사 둘을 불러 놓고 "부장님이 고검검사로 발령나면 절대 가서 영전을 축하드립니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다. 고등검찰청이 지방검찰청보다 상급기관이고 단지 "고검"이 붙어 있다는 이유로 한직인 고검검사로의 인사를 영전으로 여기고 그런 인사를 할까봐 노심초사한 건데, 아마도 그런 당혹스런 인사를 한 검사가 실제로 있었기에 그런 당부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잘나가는 선배에게는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그렇지 않은 선배에게는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인사조차 하지 않는 검사도 있었고, 검찰 간부의 생일이면 생일케이크와 손편지를 선물하는데 별로 잘 나가지 못하는 자기 부의 부장은 속 빠뜨리고 다른 부의 부장검사 생일을 챙겨서 여러 이들을 황당하게 한 검사도 있었다.

인사와 관련해서 심장을 죄어오고 피를 말리는 불안, 좌절감, 동료로부터 받게 되는 동정이나 무시, 모멸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검사들은, 경쟁이 제거된 영역에 있는 그 무리들에 끼고 싶어 한다.

우리들은 가난해요 영혼이.

그런데 현재 구속되고 재판을 받고 있는 정치검사 몇몇이 모든 검사들 중에 특별히 더 사악했던 것은 아니다. 우리들은 엇비슷한 토양에서 자랐고 그래서 그렇게 될 만한 마음의 씨앗을 품고 있으나, 그 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 뿐이다. 그들의 내면은 대략 이러하다.

그들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로 가득차 있다. 성적으로, 학벌로 사람을 일렬로 열세우는 환경 속에서 자라났고 잘 나갔던 자신이 검찰에서 갑자기 열등생이 된다는 건 견딜 수 없고, 임관 초기에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던 동기가 자기를 훨씬 앞지른다거나 하면 열패감에 몸을 떨게 된다.그들은 자리란 그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는 유일하거나 혹은 가장 중요한 표식이라고 본다. 명함 한장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또는 자기 소개를 하는 것만으로 타인은 그들에게 아첨하려 할 것이고,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하거나 인간적인 매력을 보이는 여타의 노력을 할 필요도 없다.

우병우의 내면을 보여주는, 잘 알려진 이야기가 있다. 대학교 3학년 때 소년등과를 한 우병우가 합격을 한 후 맘에 드는 여학생에게 작업한 때의 멘트는 "난 우병우야 작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했어"라고 한다. 뜨아해 하면서 자신을 거절하자 우병우는 "넌 지금의 결정을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게 될 거야"라고 했다고 하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욕구불만이다. 현재의 즐거움을 유보하고 성취를 향해 내달렸는데, 원하던 성취에 이르러도 내적인 충만감은 별로 없다. 아직 충분히 높이 다다르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높이 다다르기를 열망하게 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물욕이 크다고 불리는 그 분이 끊임없이 돈을 갈구했던 그런 심리와도 닮아있을 것 같다.

검찰은 아직도

국정농단으로 뒤숭숭하던 즈음 내가 다니는 성당의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다.

"번지점프를 해보셨나요. 언젠가 인생에서 뛰어내려야 하는 결단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자신에게 연결된 줄이 자신을 든든하게 지지해 줄 것이라고 믿고 절벽에서 뛰어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뛰어내리지 않으면 계속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게 될 뿐이고, 뛰어내림으로써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고 그 믿음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심정으로 결행을 한 임은정, 진혜원, 서지현, 안미현 검사에 대해서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그들을 여전히 눈엣가시로 여기고 있는 듯 하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마지못해 끌려오는 듯한 태도는 무엇인가.

그래서 나는, 그들이 잔혹한 지배에 부역함으로써 국민들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겪었는지와 자신들이 그 고통에 책임이 있음을 아직 성찰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나의 생각은, 우리 모두 각자 힘은 작지만, 잔매에 멍든다고 하니 검찰이 정신을 차릴 때까지 말로든 뭐든 계속 마구마구 때려줘야 한다.

우리들은 왜 불량감자가 되었는가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법조인으로서의 실패한 성장사의 단편이고, 왜 우리는 건전한 법조인이 되는데 실패하였는가 혹은 실패하기 쉬운가를 다루려고 한다. 내가 거쳤던 상황과 환경에 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되게는 서울대 법대와 사법시험을 거친 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된다.

우리가 놓친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

우리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믿었고 또 계속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우리들에게 사법시험은 우리가 얼마나 잘난 인간인가를 증명할 수 있는 경쟁의 장 이외에 다른 의미는 없었다. 본격적으로 전공공부가 시작되는 2학년이 되면 많은 아이들이 사법시험 준비에 들어갔다. 그리고 누가 사법시험에 빨리 합격하고 시험성적이 좋은가는 자신의 가치를 나타내주는 증표가 되었다. 우리가 법으로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은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를 고민하고 숙고할 기회 같은 건 없었다. 마음은 전혀 성장하지 못한 채, 영문법과 미분적분 등으로 가득차 있던 머리를 비우고 그 자리에 민법, 형법을 담았을 뿐이다.

2학년 1학기 어느 헌법 교수님은 첫 수업시간에 이제 1학년을 막 끝낸 어리버리한 우리들에게 자신의 성공한 이미지를 머리 속에 선명하게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빨리 시험에 합격한다면서 속히 그리고 충실히 사법시험을 준비할 것을 독려했지만, 그 분에게 성공의 이미지란 게 뭘지 지금 생각하면 공허하다. 그 분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폐기된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에 참여하셨는데, 헌법 전공인 분이 왜 역사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신 건지 잘 모르겠다.

우리들에게 시시한 존재가 되는 것, 경쟁에서 지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고 교만과 열등감을 동시에 마음 속에 쌓아갔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대개 그러하였으므로 서로 그러한 생각을 강화시킬 뿐이었다.

같은 과 선배이자 고려대 교수이던 어떤 분은 고려대 학생들 앞에서 매번 용감하게도 “나는 2등 인생이야. 대학입시도 차석, 사법시험도 차석, 이제 대학교도 2등 대학인 고려대에서 교수를 하고 있네”라고 한탄하였다. 이후 대법관을 지내신 당시 사법연수원 교수님께서서는 제자 앞에서 “우리 아들이 이번에 고려대를 들어갔어. 내가 기껏 고려대 보낼라고 그노무 자식을 재수까지 시킨 건지”라고 하였고, 또 다른 사법연수원 교수님은 자신이 담당한 반의 1, 2, 3 등 사법연수생들만을 데리고 주말에 등산을 간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이런 환경이니 아래 일화 속의 법조인이 나오는 게 전혀 놀랍지 않은 일이다. 아래는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인 분들의 이야기다

우병우만 레이저를 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부장판사는 매우 독선적이고 고압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유명했는데, 풍문을 듣기는 했지만 방심을 했다가 치사량의 레이저를 맞은 일이다.

민사사건의 법정이었다. 부장판사가 나에게 원고가 보험계약자인데 왜 원고에게 보험금청구권이 없다고 다투는 것이냐고 말했다. 나는 속으로 “아 이 분 내가 피보험이익에 관한 서면을 냈는데 안 보시고 그러네”라고 생각했고,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찾아본 사람을 못 당하디는 믿음을 갖고 있던 터라 부장판사에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라고 해서 당연히 보험금청구권을 가지는 게 아니라 보험에 붙인 재산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담보권 등 일정한 경제적 이익이 있어야만 보험금청구권을 가지며, 그러한 경제적 이익을 피보험이익이라고 한다” 이런 설명을 하는데, 배석판사는 내가 첫 말 한마디를 다 마치고도 전에 양손을 머리 위에 올려 X자 표시를 만들어 사인을 했다. 그만하라는 뜻 같은데, 부장판사가 아직 납득이 안 된 표정이었으므로 그만 둘 이유가 없어 계속했다.

배석판사가 다시 한번 X자 표시로 사인을 했지만, 나는 어지간히 눈치가 없어서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이 도박이나 사행계약으로 약용되는 것을 막아준다. 아무나 서울의 주요한 빌딩 스타타워나 63빌딩 같은 걸 화재보험에 들어놓고 사고가 나면 자신에게 보험금 달라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끝을 맺었다.

그런데 부장판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극도의 노기어린 눈으로 나를 노려보며, 겨울왕국의 주인공 엘사와 같은 냉기를 온몸으로 내뿜었고 법정은 몇 분간 정지화면 상태가 되었다. 아무도 무슨 말을 하거나 움직이지 않았다. 미친한 변호사가 감히 자신에게 피보험이익을 가르치려 드는 무례함에 부장판사는 분노를 폭발시켰고 법정은 겨울왕국이 된 것이었다.

우리는 세상이 규정한 정답만을 고르고 말하도록 훈련받았는데, 일단 권력을 맞보면 자신이 말하는 것이 곧 진리나 진실인 듯한 착각에 빠지는 게 아닌가 한다. 그런데 법조인들이 교만해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단지 재판참여자들을 불쾌하게 할 수 있다는 감정적 문제가 아니라, 교만은 머리와 마음 속에 타인을 위한 공간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독선과 아집을 낳고 그래서 판단도 오류에 이를 수 있다. 한정된 범위의 법학적적용을 외워서 쓰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자신이 모르는 분야가 관련된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원에도 흥발정이 있어요

이 형사 단독판사는 기일에서 매번 검사와 피고인에게 욕설과 막말, 반말을 일삼았는데, 어느 날은 엄청 건전하게 재판을 진행하시는 거다. "

아이씨 검사가 기록이나 읽고 기소한 거야'라고 짜증낸 정도가 다였다. 이유는 그 전 주에 같은 법원의 부장판사가 조리있게 말하지 못하는 증인에게 "증인 초등학교는 제대로 나왔나"라고 말을 한 게 보드가 되는 바람에 몸을 사리는 거였다. 그러나 점점 열이 오르는가 싶더니 "아 놔 안 되겠어. 신문에 나더라도 나는 욕하고 말거야" 이라는 거다. 그러고도 한참을 참더니 결국은 한계에 이르렀는지 "나보고 어찌라고 이 건 뭐 판사를 개죽으로 아는거야"라고 하였다.

일반인들은 그 판사에게서 재판받는 게 괴역이었겠지만, 검사들은 무죄를 선고하는 일이 드물어서 그 판사를 싫어하진 않았다. 공판검사가 무죄를 받게 되면 공소유지를 잘못했다고 벌점을 받고 보고서도 써야 하는 등으로 괴롭고 번거로와지는데 그 판사는 검사들도 무죄일 것으로 예상한 사건에도 좀처럼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실 검사들은 그 판사가 게을러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 것이라고 믿었다. 유죄판결은 범죄사실과 증거요지, 적용법조, 양형이유를 나열하는 게 다지만 무죄는 사실관계 판단이나 법리적인 이유의 측면에서 근거를 나열하자면 보통 유죄판결보다 쓰기가 복잡하고 공이 많이 든다. 그저 검사들의 추측에 불과하지만 그 판사님의 법정에서의 태도는 그런 짐작을 가능하게 했다.

우리들의 시시하고 초라한 자화상

우리들은 자신이 특별하다고 믿고 싶었지만, 사실은 평범하고 시시하다. 옳은 길을 선택할 용기가 없고, 세상과의 조그만 불화도 견딜 수 없어 늘 안전한 쪽에 머물려고 하고, 시시하고 천박한 지도자에 빌붙어 영화를 누리려 하고, 그 모든 게 시시하고 평범할 뿐이다.

진실을 두려워하다 - 우리들의 부끄러운 역사

어느 변호사님의 판사 시절 이야기이다. 대학교 교내에 사복 경찰들이 상주하고 일체의 시위행위가 금지되던 시절 교내시위에 참여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학생이 있었다. 사진이나 영상같은 물적 증거는 전혀 없었고 교내 매점 여직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였다. 그 여직원이 법정에서 나와서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하더라. "몇월 몇일 몇시에 저 피고인 석에 있는 학생이 무슨 색 티셔츠에 왼쪽 가슴에 어퍼어 떠한 마크가 있는 어떤 색 카디건을 입고 바지는 청바지 차림에 신발은 무슨 브랜드의 무슨 색 운동화를 신고 도서관 앞 광장 어느 편에서부터 나와 다른 어느 편으로 걸어가면서 구호를 외쳤다"는 내용이었다.

판사는 법정에서 "증인은 피고인의 여자친구요?"하고 물었고 증인이 아니라고 답변하자, "그럼 평소 짝사랑하고 있던 학생이요?"라고 되물었는데 증인은 다시 아니라고 답변한다. 판사는 "여자친구도 아니고 짝사랑하던 사이도 아니라면, 유독 수십명의 시위참가자 중 저 학생만 유심히 지켜본 이유가 뭐요. 입고 있던 옷과 신발, 이동방향까지 명확히 기억할 정도로"라고 묻자, 매점 여직원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침묵을 지켰고, 마지막으로 판사가 "당시 시위현장에서 피고인이 시위대에 참여하고 있었던 게 확실하오"라고 묻자 결국 증인은 "잘 모르겠다"고 실토했다.

당시에는 안기부의 직원이 조정관이라는 이름으로 법원에 상주하였는데, 시국사건 등 정치적 사건의 기일에 참관을 하고서 판사로부터 결과를 미리 떠보고 상부에 보고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한다. 판사실을 찾아와 판결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조정관이 묻자, 판사는 "당신도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지켜보지 않았소"라는 한마디만 했다. 그 조정관은 판사님께서 무죄를 선고하시면 자신은 사표를 쓸 수 밖에 없다고 동정심에 호소했지만, 그 판사는 무시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후 1981년 지방으로 발령난 후에, 보안사 소속 장교가 그 판사의 가족에 대한 위해를 경고한, 발신인이 익명으로 된 편지를 들고 왔고 법원을 떠날 수 밖에 없었다.

그 판사는 "증인은 피고인의 여자친구라도 되오"라는 질문으로 본인의 의심을 확인하려 했지만, 그러한 의심을 억누르거나 의심을 가지는 것조차 포기한 판사나 검사가 절대적으로 더 많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부가 조업을 하다가 남북당한 사실이나 멀쩡한 회사원이 한국전쟁 직후 월북한 사촌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구비구비 역여서 국가보안법위반죄가 인정되었겠지. 어떤 사건에서는 간첩으로 암약하며 15년동안 군사기밀을 탐지했다는데, 탐지한 비밀을 기록한 노트도 없고 오로지 머리속으로만 기밀을 암기했다 하고, 정보기관이 포섭된 것으로 주장하는 시점 이래 15년 동안 북측 연락원과 접촉해 본 적도 없고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데, 언젠가 만나서 정보를 전해 줄 그 날을 학수고대 기다리며 오랜 세월 포섭된 상태를 유지해가며 열심히 간첩활동을 해왔다는 공소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 사실들이 모두 유죄가 되었다.

그러니 과거의 공안사건들은 범죄사실을 기재한 공소장만으로 벽돌 두께 정도의 보통의 수사기록 두께가 되었다. "십수년 전 누구를 만나 알게 되어" 등으로 시작하는 시쳇말로 소설을 써야 하니까. 그러다보니 검찰청 직원이 공소장을 수사기록으로 오인하여 법원에 보내지 않고 캐비닛에 고이 모셔두는 사고가 생기기도 했다. 검찰이 허용된 구속기간 내에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시키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시켜야 하고 그래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지만, 당시 사고를 일으킨 검찰은 다급하게 법원에 가서 사정을 해서 법원의 접수인을 소급해서 찍어 위기를 모면했다는 이야기, 그 피의자가 현재는 제법 잘 알려진 유명인이라는 이야기, 그 사고 이후로는 공소장에는 수사기록과의 구분을 위해서 빨간 색 꼬리표를 붙여 둔다는 등이 검찰에 내려오는 이야기이다.

지금 우리는 법원과 검찰의 구성원들이 왜 어떤 동기로 진실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진실을 감춰왔는지를 찾아내고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법원과 검찰이 권력의 전횡에 자발적으로 조력하고 억압과 사회통제의 한 축으로 기여하였음을 반성하지 못하고, 사법기능이 공정하게 작동하지 아니한 것이 오로지 나쁜 군인과 최순실 같은 나쁜 사람 때문이라고 보는 답답한 법조인들이 아직도 많아서 하게 되는 생각이다.

일상 그리고 관계의 전근대성

이것은 이른바 재벌 대기업에 근무하는 내 친구의 이야기이다. 자기가 들려준 얘기를 함부로 폐북에 내질렀다고 화낼 것 같지만, 나는 진정한 인간해방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라고 내 맘대로 편하게 생각하기로 한다.

나는 어느날 내 친구에게 말했다. "나는 부여의 순장제가 없어진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았더라면 너네 VIP가 죽기 전에 너를 가리키며 재는 꼭 같이 물어줘라고 했을 테고 너도 제 발로 걸어들어갔을 것 같아"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 회사에 입사했을 당시에 내 친구는 신입사원 연수에서 마치 "위대한 수령 동지께서는 대동강 모래알로 쌀알을 만드시고 술방울로 수류탄을 만드시고"와 같이 허황되고 장엄한 창업서사를 공부했고 "충성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야 했다. 그 때에는 둘이 시시덕거리며 '너네 회사 참 후지다'라거나 '먼지만한 객관성이라도 있으면 충성을 강요하지 말고 자기네들이 충성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보라고 해'라는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입사 후 10여년이 지나면서 내 친구는 VIP가 주입하려던 생각에 동화되어 갔다.

해외법인에 한때 주재원으로 근무하기도 했던 내 친구가 했던 VIP 맞이는 아래와 같다.

VIP가 그 나라에 나들이한다는 계획이 발표되면 회사의 업무는 뒷전이 된다. 팀을 꾸려 VIP가 들릴 관광명소, 식당, 골프장 등 동선을 짜고 미리 예행연습을 한다. 식당에 가서 미리 먹어보고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미리 쳐보고 각각 평가를 내려 넣을 건지 말건지 결정을 한다. 그리고 VIP가 목을 호텔을 고르는 것도 험난한 작업이다. 흡연이 가능한지, 비서들이 머무를 방과의 상호배치 등 소소한 것들이 문제가 되어 VIP가 흡족해 할만한 곳을 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VIP가 공항에 새벽 4시나 5시에 도착할 때도 있는데 집에서 새벽 2시나 3시쯤 집을 나서서 공항에서 맞아야 한다. 그런 다음 VIP와 회장의 사모가 현지에서 머무는 동안은 몸종처럼 일해야 한다. 그래도 옛날에는 주재원들의 부인까지 동원되어 공항에서 웰컴িং을 하고 그 부인들은 사모를 접대했어야 했다고 하니 이나마도 나아진 거라고 한다.

몸종이 하는 일들은 다음과 같다.

현지 식당 중에는 맛있다고 알려진 유명한 식당인데도, 유독 예약을 안 받고 줄을 서서 대기할 수 밖에 없는 곳이 있다. 그러면 VIP와 사모를 위해서 대신 미리 줄을 서고, VIP와 사모의 도착이 늦어지면 차량으로 수행하는 다른 직원들과 연락해가며 뒤에 선 사람들에게 양보해가며 자리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사모가 좋아하는 디저트나 커피콩을 사기 위해서 가게로 모시고 가거나 사다 바쳐야 하고, VIP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기 위해서 고급 과일가게를 조사하고 찾아 해매야 한다. 그런 중에 거래업체에서 업무관련 연락이 오면, VIP와 사모를 위해 커피콩이나 디저트를 사러 다니는 중이라고는 차마 말할 수 없으니 다른 거짓 핑계를 대고 거래처업무를 미룬다.

VIP의 짐을 챙기는 일도 매우 중요한데, 한약은 어떻게 포장 및 저장하고 양복수트는 가로 몇센티 세로 몇센티로 어떠한 포장재로 싸는지도 매뉴얼에 나와있다. 의전매뉴얼의 두께만 천페이지가 넘었다.

한번은 VIP 때문에 내 친구가 빈곤해 진 일이 있었다.

VIP는 자기 돈으로 놀다 가는 것이 아니라 현지 법인의 돈으로 놀다 간다. 계열사끼리는 서로 거래를 하고, 그래서 VIP는 거래처 회사의 임원이 되는 것이라서 현지법인이 굳이 거래증진을 위해서 접대를 할 필요가 없는 자신의 회장님이지만 접대비로 VIP를 모시는 거다. 그런데 내 친구의 법인카드는 한도가 얼마 안 되었고 결국 자신의 개인카드까지 VIP를 접대했다. 그런데 현지 세무당국이 그 이전의 접대에 대하여 접대가 과다하고 증빙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지적을 하면서 현지 법인이 접대비 증빙에 대한 회사 내부규정을 정비하고 적용하느라 개인카드를 지출한 금전에 대한 보전이 늦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월급이 전부 카드대금 납입에 쓰이면서 두달간 월급을 가져다주지 못했다. 부인은 "지금 잔고가 2십만원 밖에 안 되는 것 알아. 쌀이 떨어져가는 건 알고, 갑자기 돈 쓸 급한 일이 생기면 어쩔건데"라고 불평을 하고 그 집 딸은 한국에서 걸려온 할머니의 전화에 울먹거리며 "할머니 우리 거지야. 엄마가 우리 돈도 없고 쌀도 없대"라고 말한다.

VIP는 어떤 때에는 한국의 긴 연휴시즌, 그리고 현지의 연휴시즌 가리지 않고 현지를 방문한다. 그러면 단신부임한 직원들은 한국의 명절에 가족을 만나러 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현지의 휴일에도 쉬지도 못하는 처지가 된다. 그리고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 일부 정치인이 해외법인에 연락을 해와서 현지의 좋은 숙소나 식당을 알려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척 알아듣고 호텔과 식당을 알려줌과 동시에 결재를 해 준다. 제발 몇몇 국회의원님들, 그지처럼 살지 말고 여행은 자기 돈으로 합시다.

이른바 재벌기업, 그곳은 아직 전근대 사회다. 확고한 신분 질서 속에서 절대 군주의 명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고, 합리적 사고도 평등한 인간관계도 없다. VIP의 개인적 취향을 충족시키는 것이 회사의 업무보다 중요하고 VIP는 오류가 없는 신성한 왕이 된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유럽국가들이 유럽 본토에서 전쟁을 치르느라 지배가 느슨해진 동남아시아 식민국가들을 노리고 전투를 치르는 중에 화기로 영국의 전투기를 격추시킨다. 운이 지극히 좋아 그렇게 된 것 뿐인데, 일본의 장군들은 화기로 전투기에 맞설 수 있다고 무시무시한 오판을 내리고 연합군 전투기들은 일본의 병사들이 알아서 다 튀어나오는 덕분에 용이하게 전투를 승리로 이끈다. 그들은 바보 같은 일본의 전투작전을 비웃겠지만, 조직을 한 사람의 한계와 오류 앞에 속수무책으로 방치하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하고 있는 일일 뿐이다.

검사들의 동상이몽

검찰간부와 평검사, 멀리서 보면 달라보이지 않으나,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많이 다를 법한 그들의 생각읽기입니다.

어느 간부검사의 경우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 이거 원안대로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현행 헌법의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삭제하고 그냥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으면 압수수색, 구속을 할 수 있다고만 하면서 이제까지 인정되던 검찰의 고유권한을 쏙 빼뜨렸네. 그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만 개정하면 다른 수사기관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될 테고, 이건 절대 안 된다.

스폰서들에게 그간 얻어 먹은 값도 해야 하고 또 청탁을 들어줘야 "아이구 이 사람 먹히네" 하면서 내 몸값도 더 높아지지. 그래야 공짜골프를 쳐도 한 번 더 치고 룬살롱을 가도 한 번 더 가지. 또 높으신 분들의 어려운 부탁을 잘 들어드려야 내 인사에도 신경 써 주실 것이고, 만약 인사에서 물먹어 변호사 개업해야 한다면 더 문제 아닌가. 모든 영장이 검찰을 창구로 해서 법원에 청구되는 "창구일원화"는 그간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의 노다지였지 않나 술까말. 소도 누울 자리 보고 늪이라고 검사들이야 이리 저리 안면있으니 찾아가서 경찰에서 올라온 영장 꺾어달라고 부탁할 수 있지. 그러니 앞으로 경찰이나 근로감독관, 세관 등등 개나 소나 우리를 안 거치고 영장을 직접 법원에 들고 가

게 하면 어찌되는 것인가.

요즘 젊은 검사들 문제 많지. 생각도 없고 패기도 없고 게다가 눈치까지 없네. 자기네들이 간부되고, 변호사 개업하는 일을 먼먼 일로 생각하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내가 점심 때 "자네들 영장청구권이 검찰에 계속 있는 게 앞으로 자네들을 위해서도 좋은 거야"라고 던지시 말하면 탁 알아듣고 내부계시판에서든 SNS에서든 강력하게 검찰을 위해서 의견개진을 하고 나가줘야 할 것 아닌가. 아 나야 물론 차장검사, 검사장 인사가 걸려있고 종이 한장 차이로 미끄러질 수 있으니 경거망동은 삼가해야지. 그런데 젊은 놈들은 잃을 것도 없으면서 복지부동이네. 다 자기들 좋으라고 내가 좋게 알려주는 건데.

애들이 역시 시야가 좁아. 우리가 검찰개혁 요구를 개겨 온 역사는 유구하지. 지지율이 70%, 80%를 구가하는 이 정권도 권력형 비리 하나 큰 거 나오면 지지율 막 떨어질테고, 그 때 되면 검찰이 적당히 정권과 쇼부보면 되지. 버티면 우리가 이기는 싸움인데.

어느 평검사의 경우

개같이 충성하다가는 개같이 버려지게 돼. ㅈ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는 넘나 충격이었어. ㅈ검사야 동문 선배인 부장검사가 "피의자가 우리 동문 출신 변호사잖아 잘해줘"라는 한 마디에 별 생각없이 따랐을 뿐인데. 피의자에게 수사기록을 유출한 건 잘못이긴 하지만, ㅈ검사가 이해가지 않는 바도 아니야.

상명하복이랍시고 매일 "네 알겠습니다"만 반복하다 보니 나도 습관적으로 그렇게 되네. 혀도 근육이 있고 사용하는 쪽의 근육만 발달하는 것 알아? 그래서 그런가. "아니오"라고 말하는 게 너무나 힘이 들어. 그간 꺼림칙한 마음으로 지시에 따르면서도 자기네들이 시켰으니까 막 아주됐지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내가 너무나 순진했어. 이제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근육을 발달시켜 보려고 해.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이나 헌법상 영장청구권 주체에 대해서 간부들이 "사법적 통제장치 없이 경찰에 권한을 넘겨줄 경우 인권침해 문제가 더 커진다"느니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어찌고 하는 것 너무 가증스럽지 않냐. 어차피 우리 기수는 다 부장 달지도 못할테고 전관예우도 점점 발붙일 자리가 없어지니 윗기수처럼 변호사 해서 재미보기는 글렀으니까 영장청구권이 어찌되든 관심도 별로 없어. 간부들이 위선 떨고 거짓으로 호도하는 것에 우리가 계속 들러리서고 조종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렵잖지.

난 이번엔 검찰인사제도가 잘 개혁되어서 자질떨어지는 간부들은 다 나갔으면 좋겠어. 능력은 빛도 없으면서 생존의 기술만 남아서 윗선이 1을 전달하면 우리에게는 그 배로 드글드글 못 살게 구는 간부들, 인사에 대한 불안과 좌절을 우리에게 화풀이하는 걸로 푸는 못된 간부들, 나갈 시기도 놓치고 변호사 개업에 자신이 없어서 마치 못해 검찰에 무기력하게 남아 있는 월급루팡들 다 나갔으면 좋겠어.

내 친구 변호사가 그러더라고. 보수를 적게 받은 경우라도 자기 의뢰인이 정당하다고 믿고 이런 억울함을 겪다니 반드시 구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피곤함도 있고 힘이 나는데, 이 새끼 나쁜 놈이구만 이런 생각이 드는 의뢰인은 정말 돈을 많이 받지 않으면 일하고 싶지 않아진대. 야근을 밥먹듯이 하고, 발령에 따라 지방을 전전하고 많이 힘들지.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건 여기 검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아닌 다른 것이 되어야 하는 거야. 내 생각과 나의 말을 잃어버리는 것 말이야.

불이익을 두려워 하지 않고 나의 생각을 말하는 것, 옳지 않은 것에 비굴하고 치사하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아도 되는 것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검찰개혁 아닌가.

마음의 연금술 - 고통과 슬픔을 마음의 빛으로 끌어안기

아래는 내가 살면서 만나본 세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이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 잊어버릴까봐 여기 남겨두려 한다.

60대를 넘긴 이 할머니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공연히 심사가 틀어진 이웃이 망치를 들고 위협하는 통에 사건이 되어 피해자 진술을 하기 위해 검사실에 왔다. 그리고 나에게 "아가씨 물 한 잔 주세요"라고 했다가 우리 계장에게 야단을 맞았다. 그런데 진술이 끝나고 난 후에 가방에서 뭔가 종이를 꺼내더니 자기가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잘 썼는지 좀 봐달라고 한다. 30여년 전 생활이 어려워 미국으로 입양을 보냈는데, 몇 년 전 어렵사리 연락이 닿았다고 한다. 그런데 아들은 그 지역 학교의 유일한 동양인이어서 놀림을 많이 받았고 그러다가 못된 놈들에게 성적인 학대도 당하고 해서 지금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했다. 한국말은 한마디도 못하는 애라서 자기가 영어를 배워 안부 편지를 쓴다고 하면서, 나에게 어چه 외운 단어라면서 영어단어 몇 개를 말하고 한국어로 뜻이 이게 맞냐고 확인도 구하신다. 피해자진술을 하러 온 기회에 검사에게 아들에게 영어로 쓴 편지를 봐달라고 하는 참 씩씩하고 귀여운 할머니였다.

다른 한 어머니는 영국에서 지낼 때 알게 된 탈북자 출신의 할머니였다.

그 할머니와 남편 모두 출신성분이 좋아서 공산당 간부를 지냈다. 북한에서 출신성분이 좋다 함은 조부모나 부모에게 항일투쟁의 전력이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나 결국에는 남편이 권력싸움에서 밀려 강제수용소에 끌려가고 나머지 가족들은 모두 중국으로 탈출한다. 중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지내던 시절 큰아들은 중국인 공장장에게 폭행을 당하여 큰 부상을 당하지만, 북한으로 송환될까 두려워 공안에도 신고하지 못하고 병원에도 데리고 갈 수 없었다고 한다. 그 할머니는 큰 아들이 두개골에서 뇌수가 흘러나온 채 며칠을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다. 마침내 그 할머니는 작은 딸 가족과 작은 아들 가족을 데리고 한국에 정착하는데, 큰 아들을 죽인 그 중국인을 청부살해할 각오로 파출부로 일해 열심히 돈을 모은다. 작은 딸도 북한에서 간호사였던 터라 요양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함께 열심히 일한다. 그런데 한국 정착을 도와준 목사님을 믿고 따르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게 되면서 청부살해의 결심은 지우게 된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난 후 할머니는 손녀를 위해 한국에서의 일자리고, 재산이고 다 정리하고 영국에 와서 난민신청을 한 것이었는데, 손녀가 겪은 일은 다음과 같다. 손녀는 탈북자인 것을 숨긴 채 한국에서 고등학생을 다니고 있었다. 그런데 손녀는 탈북자 출신의 다른 아이가 왕따 당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져서 북한사투리 억양을 쉽사리 지울 수 없는 어머니 할머니와는 외출도 하지 않으려 했고, 아파트에 같은 학교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산다고 이사가자고도 했다. 할머니는 손녀가 어느 날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하염없이 아래를 내려다 보는 것을 보고 섬뜩한 생각이 들어 탈북자의 정착지로 새로이 떠오른 영국으로까지 표류하게 된 것이었다.

그 집 가족들은 영국정부에 난민신청을 한 후 심사 대기 중이었는데, 나의 그 할머니와 관련된 영국에서의 기억은 고사리나물과 명이나물이

다. 영국은 기후가 습하여 고사리가 많이 자라는데, 영국인들은 고사리를 먹지 않으며 대개 뜯어서 양에게 준다. 또 우리나라는 울릉도에서 만 자라는 명이나물이 같은 해양성 기후인 영국에는 지천에 널려있다. 생활력이 강한 이 할머니는 영국의 들판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고사리를 뜯고 말리고 캐운 명이나물로 장아찌를 담궈서 그걸 몇몇 한국인 가족이나 유학생에게 나누어 주었다.

마지막은 어머니가 되지 못한, 혹은 어머니가 될 수 없었던 어머니의 이야기이다.

아이는 뇌성마비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 엄마는 자기 자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부부 사이는 나날이 나빠졌고 엄마는 우울증이 심각해졌다. 가족들은 그 엄마와 아이를 떼어놓는 것이 둘을 위해서 최선이라는데 결론을 내렸고, 그 아이는 남편이 키우기로 하고 둘은 이혼했다. 그 아이는 십대가 되어 뼈뼉뼉한 글씨로 "엄마 보고 싶어요"라는 아주 짧은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 엄마는 내게 "아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앞으로 보내지 말라고 답장하면 애가 상처받을 것 같고, 그렇다고 계속 보내오면 귀찮은데"라고 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불가사의한 마음의 힘이다. 우리 대부분은 나약하고 두려움이 많다. 우리의 마음을 압도하게 될 좌절감과 열패감을 회피하기 위해 어둠을 직시하지 않으려 하거나 먼저 자기를 파괴해 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고통과 슬픔을 마음의 빛으로 끌어안아 생명의 의지와 활기로 바꾸어 낸다. 두려움과 분노를 이기고 스스로를 치유하며 타인에게도 따스한 손을 뻗친다.

그런 마음의 힘을 가졌다고 느낀 두 할머니가 떠올라서 적어보게 되는 글이다.

검사실격

같은 검찰청에 속한 그 검사는 법무귀족이었다. 워낙 배경이 든든해서 검찰에 들어오던 때부터 검찰에서 숨만 쉬고 있어도 최소한 고검장은 갈 것이라고 말해졌다. 그런데 위험정당해산심판 사건의 TF팀에 소속되어 정당해산결정을 이끌어내자 이제 법무부장관의 총애까지 받게 되었다는 소문이었고, 소속 형사부의 부장마저 평검사인 그를 어려워했다.

그에게서 성추행을 당한 몇몇 후배 여검사들은 그의 위세에 놀려 침묵을 지켰다. 그런데 정작 그 문제는 다른 데서 터져 나왔다. 회식자리에서 아이스크림을 앞에 두고 한 부장검사가 민망한 언급을 하자, 실무관들이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다고 들고 나섰다. 그 발언의 직접 대상이 된 여검사를 불러 사정을 청취하는 자리에서 그 여검사는 부장의 발언 정도는 일상다반사이니 참을 수 있다, 자신이 정작 처벌을 바라는 것은 그 법무귀족의 강제추행이라고 한다.

이럴 때는 대개 무마조가 나서게 된다. 무마조는 그 피해자를 위해주는 척하면서 문제제기를 해봤자 너만 힘들어진다는 주입시킨다. 그리고는 뒤돌아서서는 다른 검사들이 피해자에게 동조할까봐 그 검사에 대한 모함을 늘어놓고 다닌다.

무마조는 대개 세 가지 정도의 부류가 있다. 스스로 사유함이 없이 위에서 시키는 대로 명령을 받들기만 하는 자들, 조직과 자신을 일체화시킨 자들로 검찰에 대한 비판을 자신의 인격에 대한 힐난과 동일시하여 문제를 퐁퐁 감추는 것으로 완벽한 검찰의 모습을 가장하는 자들, 가장 추악하게는 가해자와 직접 연결되거나 혹은 가해자에 대한 지휘감독책임을 물어 문책당할 수 있는 윗선과 연결된 자들이다. 이들은 자신을 위로 끌어올려줄 동아줄이 사라지게 될까봐 가장 열심으로 나서게 된다.

사시 동기들 중에 부장승진이 늦어 맘고생이 심했던 어떤 이는 자신의 뒤늦은 부장승진이 동향 출신에다가 같은 고등학교 출신인 검사장 덕이라고 믿는다. 어렵사리 잡은 그 사다리가 치위질까봐 전전긍긍해 하며 무마조로 나섰나 싶다. 뒤에서는 피해자를 이상한 검사로 몰아붙이는데 나는 그의 알뜰한 욕망이 다 보인다.

모두가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 이 곳에서 다들 열심히 인사운동을 한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강력한 손이 미치면 심지어 인사안 결재 받으러 가는 차 안에서 인사가 바뀐다고 하고 또 근무평정은 인사에서 날릴 때 써먹지 근무평정 좋다고 좋은 자리 가는 건 아니라고도 한다. 그래서 동기보다 능력이 모자라는 것도 아닌데 부당하게 승진이 늦어졌다고 믿는 저 부장은 간신히 잡은 동아줄을 날릴 수도 있는 피해여검사를 죽도록 적대시하고 있다.

그런데 사안이 너무나 중대하여 무마조는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었고, 지휘책임을 추궁당할까봐 두려워 하던 검사장이 결국 피해자들을 불러다 놓고 너희들이 오해가 많으니 어찌나 설득해서 징계와 기소는 하지 않고 사표를 쓰는 걸로 정리되었는데, 그나마도 본인이 사표를 쓰지 않겠다고 한동안 버틴 모양이었다. 그런데 인사시준이 아닌 때에 사직을 하면서 기자들 사이에 이런 저런 말이 돌게 되었다. 사직 후까지 그를 비호해주느라 청은 소속 형사부 부장검사와의 갈등이 있어서라고 말을 지어냈고, 영문을 모르는 부장검사는 기자들의 전화에 "아 내가 그 잘나가는 검사님을 모시고 사느라고 얼마나 맘 고생이 심했는데"라고 답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가 무너진 이 자리에서 검사들은 다만 정의감을 연기하고 있을 뿐이다. 내부의 성범죄자를 비호하면서 자신의 검사실에 불러온 성범죄피의자에게는 분노하고, 양심에 따라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검사를 왕따시키면서도 학교폭력 가해자들에게는 타인에 대한 예의와 관용을 말한다. 나는 이 모든 게 소극같다.

그 왕따검사는 상부의 지시에 반기를 들다가 유배지로 쫓히는 몇몇 검찰청을 돌고 있고, 쟁치만 우두둑 떨어지는 보복배당을 받게 되어 근무평정을 말아먹고 있다. 그러면 검찰수뇌부는 7년마다 있는 검사직적심사에서 아주 정당하게 눈엣가시인 그 검사를 자를 수 있게 된다. 그 왕따 검사가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면 공격하는 댓글들이 마구 달린다. 그 검사는 휴직 중에 다른 검사의 청내 컴퓨터를 빌려서 이프로스에 글을 올렸는데, 컴퓨터를 빌려 준 이가 누구인지 색출에 들어갔다. 언론에 검찰 내부의 나쁜 소식이 보도되면 그 왕따 검사와 연락을 주고받는 그나마 몇몇 안 되는 검사들이 용의선상에 올라 그들까지 괴롭힘을 당한다.

나의 세계는 철저히 분열되어 있고 나는 다른 검사들처럼 그 때 그 때 편리하게 가면을 바꿔쓰는 것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검사로서 실격인가 보다.

언젠가 민물참게 양식을 하는 사람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막 탈피를 마친 게는 외피가 아직 단단해지지 않아서 먹기에도 좋고 피부에서 분비되는 진액 때문에 기막히게 좋은 냄새를 풍겨서 다른 게들의 포식의 대상이 된다고. 나의 그 무엇이 부장으로 하여금 나를 지독하게 괴롭히도록 만드는 걸까. 나는 잘못된 것이 없는데, 혹시 나의 가면이 얇아서 부장에 대한 나의 마음이 다 비쳐보이는 걸까.

어린 게들이 다 포식당하면 어떻게 하나고 묻자. 그 양식장 주인은 참게들을 위한 엄폐물로 타이어나 시멘트구조물을 양식장에 넣어준다고 했다. 그러나 이 검찰청에서는 부장의 혹독한 처우에서 나를 보호해 줄 만한 곳이 없다.

2016년 5월 19일은 내가 죽은 날이다. 그러나 그 날은 나의 육체가 죽은 날일 뿐이고 나의 영혼은 이미 그 이전부터 죽어 있었다. 모두가 나의 육체의 죽음은 슬퍼했으나, 영혼의 죽음은 깨닫지도 못했고 슬퍼하지도 않았다.

** 2016년 김홍영 검사의 자살과 최근에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진모 전 검사를 소재로 가져왔고 둘은 같은 시기에 동일한 검찰청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습니다. 디테일의 상당 부분은 픽션입니다.

슬기로운 검사생활

검찰에서 잘 지내려면, 아래의 능력이 필요하다. 정의감, 범죄를 색출하려는 집요한 의지와 수사능력보다는 이게 더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들만의 싸인 - 공기를 읽다

높으신 분들은 본인이 바라는 바를 입 밖으로 직접 발설하지 않으시며 다만 그 길로 유도할 뿐이다.

나의 첫 부장님은 "검사가 무죄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검사가 판사처럼 생각하는 건 금물이다. 증거가 다소 부족해도 나쁜 놈이라고 생각되면 구속청구하거나 기소해야 한다. 영장청구되고 재판받는 과정 자체가 스트레스니까 이렇게라도 혼내야 하고, 운이 좋다면 공판 단계에서 새로운 증거가 수집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리고 나쁜 놈 판별법을 전수했는데, 범죄경력조회에서 사기죄 무혐의가 두 개 이상이면 무조건 나쁜 놈이라고 말했다. 사기죄 무혐의가 1개라면 단지 운이 나빠서일 수 있는데, 매번 사기죄로 고소되어 무혐의를 받는 것은 교묘하게 사기를 치는 더 나쁜 놈이거나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말씀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기개 만땅이신 부장이 유독 어떤 사건 앞에서는 약해진다. 증거가 충분하거나 혹은 더 파보면 증거가 더 나올 것 같은데 부장실에 불러다가 "이게 사건이 돼? 무죄 나오면 책임질 거야"라고 호통치며 들연 종전의 태도를 바꾼다. 그러면 불기소처분으로 결론을 바꾸어 앞선 결재를 올리는 것이 슬기로운 검사생활의 길이 된다.

상급자들은 상황이 잘못 풀릴 경우의 출구전략을 염두에 두고 행동한다. 본인들의 관여는 숨겨야 하며, 나쁜 결정, 잘못된 판단의 출처는 평검사여야 한다. 위의 상황에서 "무혐의처분을 하라는 말씀이십니까"라고 굳이 확인을 구하는 것, 심지어 부장의 의견이나 지시가 기록될 수밖에 없도록 전자결재 시스템상에 먼저 상신하는 것은 몹시 슬기롭지 못한 검사생활이 되며, 앞으로 저를 맘껏 갈구셔도 됩니다라고 선언한 꼴이 된다.

가진 사람들은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선고를 위하여 동원할 수단이 많으므로 위에서 이견을 내지 못할 정도로 또는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지 않고는 못 배기도록 증거를 차고 넘치도록 갖추자는 뜻일 때에는 추가증거를 확보할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지시한다. 그러나 사소한 보고누락, 소환이나 압수수색 일정 등으로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다면 이진 수사를 그만하라는 싸인이다. 단심이 있는 검사는 윗선의 방해로 덜 받는 다른 방법으로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상급자는 자신의 속내를 읽고도 모른 체하는 주임검사에 복장이 터져서 점점 조바심과 노여움을 드러내게 된다. 속내를 직접 말하지 않고 내숭을 떨며 암시를 주는 연애상대방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짜증이 차오르는 것처럼.

검찰총장이나 반부패부장이 수사결론을 지시한 것은 아니니 부당한 수사개입이 아니라는 것은 참으로 공허하고 진실을 호도하는 말이다. 간부들은 자신이 빠져나갈 길까지 터놔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유도하는 대로 주임검사를 몰아갈 뿐이다.

책임은 아래로만 흐른다

검찰은 그 직위의 고저에 따라 말의 신뢰도와 의미가 부여되므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지위가 낮은 자들에게 비난과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전략이 된다. 검찰 담당 기자들도 갑툭튀한 평검사보다는 검찰 내 상급자들과 평소 친분이 두터우므로 그들의 말에 의존하고 기껏 중립적이라고 해도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한판승부, 결전 등의 어휘를 써가며 오락화시켜 버린다.

사실 검찰이 쓰는 사전에서 언어는 매우 오염되어 있다. 의견교환은 상급자가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강변하는 과정이고, 의견조율은 일단은 이견이 있으나 검찰의 윗선이 원하는 대로 귀결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미이며, 검찰내부 진상조사에서 윗선이 꺾고 불편해할 진상이란 있을 수 없다.

김홍영 검사의 자살이 있고 난 후 내부조사에서 검사들 다수가 김대현 부장검사의 폭언, 폭행을 진술하자, 당시 검사장은 평검사 개개인을 검사장실에 불러 말한다. "내가 자네 어깨를 툭툭 치면 이게 폭행인가 격려인가, 나는 격려의 뜻으로 한 건데, 피해검사가 예민해서 나 폭행 당했어 라고 하면 폭행이 되나" 부장검사가 평검사를 격려하기 위한 다소 거친 말과 행동을 김홍영 검사가 심약하여 오해한 것이라는 게 진상이 될 뻔하였으나, 김홍영 검사의 연수원 동기 700여명의 서명과 가족들의 호소가 검찰이 바라던 "진상조사"를 좌절시켰다.

지위가 낮은 자에게 비난과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안미현 검사의 폭로 후 대검 관계자는 "증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소환을 하는 것은 무혐의 처분을 염두에 두거나 부실수사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에서 "증거를 더 확보하고 보강 수사를 하라고 한 것이지 외압을 넣은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다른 검사들은 "안미현 검사의 부실 수사가 빚어낸 참극"이라고까지 말한다. 보좌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것을 회방놓고 채용비리 브로커에 대한 압수수색을 보류시킨 것은 대검인데, 안미현 검사가 부실수사를 했다고 하는 참 어이없는 변명이다.

아부가 필요해

검찰 간부들의 내면은 대체로 황폐하다. 저렇게 치사하고 교활하게 살아가고 계시니 혼자있는 고요한 시간이면 내면으로부터 부끄러움이 차오르지 않겠는가. 스스로 나는 좋은 사람인가 괜찮은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할 수 없으니 자긍심과 자부심은 외부로부터 채워져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심기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검찰 간부들은 매우 후하다.

간부들의 생일까지 챙기고 부모님에게도 쓸까말까 하는 손편지를 정성스럽게 써서 바치는 한 검사가 있었다. 어떤 부장은 손발을 오그라들게 만드는 가식적인 헌사가 본인을 해당 인지부서에 끌어달리는 메시지임을 읽고서 케익과 손편지를 돌려주면서 “이거 쓸 시간에 기록이라도 하나 더 보게”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머지 간부들은 매우 흡족해 했고, 그 검사로부터 손편지를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잘 나가는 검사로 인식되고 있는가를 판별하는 판독기가 되기 때문에 받지 못한 부장은 몹시 섭섭해했다.

술자리에서 화려한 아부사를 바치는 검사의 얼굴을 보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보고 있는 우리들만 부끄러워서 다행이다. 본인의 얼굴과 눈빛은 저렇게 희열에 들떠 있으니 집에 돌아가서 적어도 이불킵은 하지 않겠다, 상대방이 가진 자리와 권력 때문에 진정한 존경과 애정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면서.